

인권정보자료실  
R1.1.18

# 인권하루소식

HUMAN RIGHTS DAILY NEWS

전화) 02-741-5363 · 팩스) 02-741-5364 · 통신

# 인권하루소식

제2007호 ~ 제2124호

합본 18호  
(2002년 1월 ~ 6월)

## 4·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포명령자, 미국책임 등 규명

제주 4·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. 연관 4·3에 관한  
이시 여는 해 보다도 훨씬 앞선 시점  
사건 전개되고 있다. 4·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.  
4·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. 연관 4·3에 관한  
이시 여는 해 보다도 훨씬 앞선 시점  
사건 전개되고 있다. 4·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.  
4·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. 연관 4·3에 관한  
이시 여는 해 보다도 훨씬 앞선 시점  
사건 전개되고 있다. 4·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.

인권하루소식

합본 18호

2002년  
1월 ~ 6월



인권정보자료실  
R1.1.18

인권하루소식



인권하루소식

110-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-29 (4층) 전화 741-5363 팩스 741-5364



인권하루소식

# **인권하루소식**

**합본 18호**

**(제2007호 ~ 제2124호)**

2002. 8

# 차례

부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색인 /247

제2007호(2002. 1. 8) /1

- 1면 · 레미콘 노동자 날개 펼 그 날까지 - 강추위 속 명동성당 노숙농성 계속
- 2면 · <최정민의 인권이야기> 양심에 '따른' 병역거부에 얽힌 얘기
- <주간인권흐름> (2001년 12월 25일 ~ 2002년 1월 7일)

제2008호(2002. 1. 9) /3

- 1면 · 동성애, 청소년에 해롭다? - '엑스존', 유해표시 불복... 사이트 과업 중
- 구치소 수감자 또 사망
- 2면 · 노바티스, 글리백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- 의약품 접근권 위해 '강제실시'해야...
- <해설> 강제실시란?
- 국회,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- "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"

제2009호(2002. 1. 10) /5

- 1면 · '엑스존'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- 인터넷등급제,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
- <클릭 인권정보자료> 장애대학생들이 느끼는 차별 측정
- 2면 · 서울대, 구두약속 무시 31명 해고 - 시설관리 노조,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
- 서울구치소 사망자 1차 부검결과 발표 - 구치소측 의료조치 적절 여부 초점

제2010호(2002. 1. 11) /7

- 1면 · 에바다 정상화 길목, 막힌 철문 - 옛 비리재단 측, 마지막 몸부림
- <만화사랑방>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 매체?
- 2면 · "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" - 의문사규명위 중간발표,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
- 서울 구치소, 중환자 여러 시간 방치 ... 죽음으로 - 구치소 내 의료 문제 노출

제2011호(2002. 1. 12) /9

- 1면 · 정신지체인 성폭력, 대법원 유죄 확정 - 장애인 피해자 진술, 신빙성 인정
- <논평> '게이트'가 가르쳐주는 인권
- 2면 · <기고>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(동아자동차운전학원) -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
- 인터넷 게시물, 국보법·집시법 위반 꼬투리 -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

제2012호(2002. 1. 15) /11

- 1면 · 삼성SDI 노동자 실종 보름째 - 납치·폭행·회유, 노동운동 씨말리기

소소투쟁

오리복합

(오리복합 - 오리복합)

8 .S00S

- 의문사규명위원장 사퇴서 제출
  - 에바다 진입 좌절, 정상화 차질
- 2면 · <이계수의 인권이야기> 경찰의 이른바 '체증활동'과 집회·시위의 자유  
· <주간인권흐름> (1월 7일 ~ 1월 14일)

**제2013호(2002. 1. 16) /13**

- 1면 · CCTV 설치하는 사용자의 권리? - 노동부,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
·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람 - 80년 군사재판 '다'급 판정, 8개월 삼청교육
- 2면 · 사회복지 종사자, "우리에게도 노동권을" - 정립회관, 수당 미지급·부당해고

**제2014호(2002. 1. 17) /15**

- 1면 · "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" -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  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'정보접근권'
- 2면 ·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-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
· 대학교수의 비판기능 질식 - 교수단체들, 계약제·연봉제 저지투쟁

**제2015호(2002. 1. 18) /17**

- 1면 · 수지김 가족의 한 맺힌 호소 - "공소시효 없애는 운동 벌여야 합니다"  
· <만화사랑방> 사회복지사 심청던~!
- 2면 · <현장그리기> 2002 교사 인권교육 워크샵 - 인권교육, 강연없이 스스로 배운다  
· 재소자 사망사건, 인권위 진정

**제2016호(2002. 1. 19) /19**

- 1면 · 제주카지노, 성희롱 집단진정 - 영당이·아랫배 치기, 성적 수치심 유발 언사  
· <논평>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라
- 2면 · 병역거부 후 사회봉사 한달째 - 거부자 오씨, 출두요구 구두 통보 받아  
· 진주경찰서, 총기 사건 검찰 송치 - 조작의혹 여전... 유족, 장례 안치려  
· <인권 영화보기> 가리봉동 그 변방의 사람들

**제2017호(2002. 1. 22) /21**

- 1면 · 진주총기사건, 조작증거 발견 - 경찰 발사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탄흔 발견  
· 보험료 결정,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- 사회단체,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거부 선언
- 2면 · <정희진의 인권이야기> '권리와 도리' 사이에서  
· <주간인권흐름> (1월 15일 ~ 1월 22일)

**제2018호(2002. 1. 23) /23**

- 1면 ·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- 추락참사 1년,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
· <자료읽기> 「2001 삼청교육대백서(상)」
- 2면 · 경찰, "시위에 '상여' 무조건 안 돼" - 집회장 난입 ... 방패로 찍고, 상여 부쉬  
· 무장병력, 군 의문사 유족 감금

**제2019호(2002. 1. 24) /25**

- 1면 · 외국인노동자, 임금체불 항의파업 - 회사, "신고해 추방시키겠다." 으름장  
· 병역거부권 '1천인 선언운동' 전개
- 2면 · "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" - 오늘,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
· "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 돼요" -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

**제2020호(2002. 1. 25) /27**

- 1면 · 인권단체들, 장세동 고발한다 - '수지김' 사건 계기로 공소시효 문제 제기  
· <만화사랑방> "장애인도 버스 타고 싶다"
- 2면 · 영풍그룹에 맞서 파업 1백 88일 - 1백7명 집단해고에도 '시그'투쟁 계속된다  
· "테러방지법 반대, 인권침해 위험" - 대한변협, 국회에 의견서 전달  
· 아모르가구 이주노동자 파업승리 - 사업주, 밀린 임금 전액 지급키로 약속

**제2021호(2002. 1. 26) /29**

- 1면 · 법무부 "수용자 사망, 잘못없다" - 호흡기 언제 뿔지 정하면, 치료비 고려  
· <논평>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
· <특별기고>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- 말단 김모씨에 대한 모든 책임 전가
- 2면 · 자본의 세계화 넘기위한 대안 모색 - 세계사회포럼, 브라질에서... 민주노총 등 참가

**제2022호(2002. 1. 29) /31**

- 1면 · 의문사 유가족, 특별법 개정안 마련 - 의문사규명위 조사권한 강화, 조사기간 연장  
· 노조탄압 사용주, 국민훈장 수상 - 선정과정에서 불법·부당노동 행위 고려안돼
- 2면 · <류은숙의 인권이야기> "학연이 있으신가 보죠?"  
· <주간인권흐름> (1월 22일 ~ 1월 28일)

**제2023호(2002. 1. 30) /33**

- 1면 · 법원, "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" - 병역법 위헌제청...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
· <기고> 주간 '평화와 인권' 서미숙 기자 - 전주교도소, 재소자 서신·집필 불허  
·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
- 2면 · 삼성노동자 또 자살, 이유는? - 구조조정에 따른 정신적 압박 못 이겨  
· <자료>병역법 위헌 제청 결정문 요지

**제2024호(2002.1. 31) /35**

- 1면 · 인권단체들, 장세동 고발-"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"  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For the Record 2000: United Nations human right system
- 2면 · 국정원 직원, "사찰은 통상적 일" -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, 경찰 비호 아래 도망  
· 정부, 장애아동가구 지원 월 5만원 - 가정환경 상실 방지, 앞뒤 안맞는 장애아 지원책

**제2025호(2002. 2. 1) /37**

- 1면 · '국보법 폐지' 현수막은 안 돼? -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 
· <만화사랑방> "수퍼맨이 못된 삼성맨들은 더이상 필요가 없지~"  
· '김훈 중위 사망사건' 손해 기각 - 유가족, "이것도 재판이나" 법정 오열
- 2면 · 이달의 인권 (1월)

**제2026호(2002. 2. 2) /39**

- 1면 · 글리벡, 국내최초 '강제실시권' 청구 -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
· <논평>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한다
- 2면 ·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, 유엔 간다 - 민변,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
· 병원비 독촉에 전셋집 내놔 - 뇌사상태의 수원구치소 재소자  
· <울림-인권영화> 겨울에서 겨울로

**제2027호(2002. 2. 5) /41**

- 1면 · "민간인 학살 문제, 방치하지 마라" - 한국전 전후 민간인 학살, 특별법 제정 촉구  
· 각계 1500여명,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- 기독교계,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
- 2면 · <최정민의 인권이야기> 아... 대한민국!  
· 주간인권흐름 (1월 29일 ~ 2월 4일)

**제2028호(2002. 2. 6) /43**

- 1면 · 흑자경영에도 393명 정리해고 위기 - 사회단체,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
· <책읽기> 『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인 정보집』
- 2면 · '반인도적 국가범죄' 처벌 가능한가? - "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"  
· 글리벡 투쟁, "이윤보다 생명을" - 한국노바티스 앞, 강제실시 촉구대회

**제2029호(2002. 2. 7) /45**

- 1면 · '자기정보' 비공개, 경찰관행 위법 - 행정법원,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 판결  
· 장애아 통합캠프 참여, 웬 징계 사유? - 장애아 교육권 확보 운동 불씨 만든다
- 2면 · 한국, 아동권 어디까지 왔나? -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
· 사용자 불법고용, 노동자가 뒷감당 - 행정법원, 불법과건의 경우 '해고'란 없다?

**제2030호(2002. 2. 8) /47**

- 1면 · 환경미화원, "약속은 지켜야지" - 안산시청, 청소대행업체 편들기 의혹  
· <만화사랑방> 노바티스, "돈이 없다면 구해줄 수 없소!"
- 2면 · '범민련 방북단' 전원 유죄판결 -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, 아직도 그대로!  
· 오태양 경찰 출두 ... 조사 후 귀가 - 연대회의, '병역거부자 불구속수사' 촉구

**제2031호(2002. 2. 9) /49**

- 1면 · "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소서" - 감금매춘·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 
· <논평> 악의 축? 부시방한을 거부하라!
- 2면 ·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- 강서구청,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

- "교도소가 병원이나?" -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불멘 소리
-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- 연대회의, "불구속 원칙 일반화" 촉구

**제2032호(2002. 2. 15) /51**

- 1면 · '희망퇴직' 압력에 노동자 사망 - 대우자판, 요양 중에도 전화해 퇴직 종용  
· <만화사랑방> 부시, 냉전사고 입국 금지 검색대 통과하자 '빠빠빠' 경보음
- 2면 · 의원 69명, '의문사법' 개정안 발의 - 의문사 진상규명, 돌과구 열리려나?  
· 정부의 주5일제 방안, 근기법 못 미쳐 -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

**제2033호(2002. 2. 16) /53**

- 1면 ·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- 원주지원,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  
· <논평> 비전 2011!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
- 2면 · <기고> 1.31~2.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- 민중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
· <울림-인권영화> 주민등록증을 찢어라

**제2034호(2002. 2. 19) /55**

- 1면 · "무기강매·전쟁책동 중단하라" - 부시 방한 반대 시위 곳곳  
· 종교·양심적 병역거부 기독교계 토론회 - 병역거부권 인정, 갈 길 멀다
- 2면 · <이계수의 인권이야기> 테러방지법은 가고 '평화의 국제연대'여 오라  
· 주간인권흐름 (2월 4일 ~ 2월 18일)

**제2035호(2002. 2. 20) /57**

- 1면 · 대우차 해고자, 상처와 회한의 1년 - 공장으로 돌아가리라, 복직지원제 열어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·2』
- 2면 · 어느 경기보조원의 황당한 해고 - 회사, "조합원들은 근무시키지 마라" 지시

**제2036호(2002. 2. 21) /59**

- 1면 ·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-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
· 부시방한 반대, 각계각층 총집결 - 경찰 집회장 난입, 참가자 여럿 부상
- 2면 ·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 청구 - 자기정보 '정정'시 반환·폐기 개념 포함돼야  
· <발췌> 테러방지법(안)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
· "정광훈 전농 전 의장 석방하라" - 민주노총, 전빈련 등 석방촉구 성명 이어져

**제2037호(2002. 2. 22) /61**

- 1면 · "경찰이 두눈 찌르고 안면 가격" - 민중연대, "경찰 폭력에 법적대응"  
·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- 국회, 진지한 검토 없이 처리 우려  
· <만화사랑방> 한총련 미상의 점거농성에 미대사관 발끈 - 테러방지법 불쑥 찬스닷!
- 2면 · <필리핀 인권기행>① 무너진 공교육, 방치된 아이들

**제2038호(2002. 2. 23) /63**

- 1면 · 월드컵 핑계 집회탄압 현실로 -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11명 연행  
· <논평>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
· 대용C.C. 부당징계 인정 - 부당노동행위는 인정 안해 노조 반발
- 2면 · <필리핀 인권기행>② 전쟁터, 거리의 아이들 찾아 나선 민간단체 인권교육

**제2039호(2002. 2. 26) /65**

- 1면 · 철도·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- "민영화하면 요금 인상, 사고 빈발"  
· '의문사법' 개정 작업 난항 - 유가족 "대폭양보냐, 전면철폐냐" 갈림길
- 2면 · <정희진의 인권이야기> 하리수와 오태양  
· <주간인권흐름> (2월 18일 ~ 2월 25일)

**제2040호(2002. 2. 27) /67**

- 1면 · 민영화 반대, 전국적인 연대파업 - 13만 노동자,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
· 테러방지법안 심의, 3월 국회로 연기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테러방지법 자료 모음』
- 2면 · <필리핀 인권기행>③ 가난과의 전쟁, 전쟁 속의 가난

**제2041호(2002. 2. 28) /69**

- 1면 · "해외매각, 전력공급 불안 낳는다" - 발전산업노조 3일째 파업 지속, 철도는 타결  
·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?  
·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범조인 선언
- 2면 ·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-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 개념 도입도 시급  
· '의문사법' 국회 법사위 상정 - 유가족,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

**제2042호(2002. 3. 1) /71**

- 1면 · "사용자들은 하나도 잘못없다?" - '레미콘노조',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마무리  
·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-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
- 2면 · 이달의 인권 (2월)

**제2043호(2002. 3. 5) /73**

- 1면 · 국가인권위,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- 알 권리 침해 ...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
· 철도청, 파업 후 대규모 고소고발 - '징계최소화' 합의 위배, 철도노조 강력 반발
- 2면 · <최정민의 인권이야기> 강철구씨의 착각  
· 주간인권흐름(2월 26일 ~ 3월 4일)

**제2044호(2002. 3. 6) /75**

- 1면 · 경찰,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- 서버 압수수색 검토,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
· <책 읽기> 『인권과 사회복지실천』
- 2면 · "민영화방침 유보, 공론화가 우선" - 발전소 매각 문제 지적 긴급 토론회 열려  
·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- 옛 비리재단 쪽,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

**제2045호(2002. 3. 7) /77**

- 1면 ·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- 검진대상 중 94% 근골격계 질환, 회사 은폐 의혹  
· "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령" - 인권단체,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
- 2면 ·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-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
·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- 경찰청·평택경찰서 앞 집회

**제2046호(2002. 3. 8) /79**

- 1면 ·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분사반대 파업 - 세계여성의날, 청소여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  
· 발전소 매각반대, 9백88인 시국선언 - "민영화 강행방침 철회, 국민적 공론화 촉구"
- 2면 · 94돌 '세계여성의 날' 여성계 요구 - 성매매된 여성 인권, 보육 공공성, 가족 평등

**제2047호(2002. 3. 9) /81**

- 1면 ·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-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
· <논평>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
- 2면 ·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- 즉결심판소, "불안감 조성·업무방해"  
·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- 한총련 전 대의원, 5년 재 수배생활  
· <울림-인권영화> 철로 위의 사람들

**제2048호(2002. 3. 12) /83**

- 1면 ·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-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
· 조계사 신도회, 종로서장 파면요구 - "법당난입·발전노조원 연행은 만행"
- 2면 · <이계수의 인권이야기> 집회·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범위  
· <주간인권흐름> (3월 5일 ~ 3월 11일)

**제2049호(2002. 3. 13) /85**

- 1면 · 경찰,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- 불법체포·주거침입·복귀서 강요 등  
· <책 읽기> 『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-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』
- 2면 · <기획> 시효는 없다. 반인도적 국가범죄! ①  
·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, 고 박영두 치사사건

**제2050호(2002. 3. 14) /87**

- 1면 · "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" -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 
·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- 정통윤 감시활동,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
- 2면 · 민주노총 단협모범안, 인권조항 눈길 -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
·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- 형식적인 법조항, 구체적인 사업 미흡

**제2051호(2002. 3. 15) /89**

- 1면 · 노점상,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증고 - "정부,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"  
· <만화사랑방> 부시스런 회사와 오노스런 경찰...

- 2면 · <기획> 시효는 없다. 반인도적 국가범죄! ②  
- 한국판 인종청소,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

**제2052호(2002. 3. 16)** /91

- 1면 · 국내 화교에 영주자격 부여-미흡한 지위향상, 영주'권' 확대 요구  
· <논평>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
2면 · 포괄적 비공개 규정, 공개원칙 무색 - 인권위,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
· 미국, 9·11 이후 ...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- 인권침해 계속

**제2053호(2002. 3. 19)** /93

- 1면 · 에바다 폭력 사태, 한계점까지 - 해아래집 침탈...경찰 소극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 
·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-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의 자유제한 제도  
2면 · <류은숙의 인권이야기> 아, 에바다  
· <주간인권흐름> (3월 12일 ~ 3월 18일)

**제2054호(2002. 3. 20)** /95

- 1면 · IMF 핑계, 테러방지법 억지 - 민주당, 공색한 변명 ... "입법 불가피" 고집  
2면 · <기획> 시효는 없다. 반인도적 국가범죄! ③  
- 공소시효,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
· <기획>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- 강점시기 강제 동원,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
3면 · 침묵하지말자, 한총련 이적규정 - 이적규정 5년, 「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」 발족

**제2055호(2002. 3. 21)** /98

- 1면 · "공무원·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" - 정부, 공무원 노조 '불법' 고집  
· <책임기> 『한총련 이야기』  
2면 ·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- '언발에 오줌누기식', 교육개혁 역행  
·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? -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

**제2056호(2002. 3. 22)** /100

- 1면 · 발전회사,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-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 
· <만화사랑방> 에바다 폭력사태를 방조하는 이들  
2면 · <기획>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! ④  
-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
· <기획>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- 조작간첩사건

**제2057호(2002. 3. 23)** /102

- 1면 · 유엔 인권위, 테러방지법 직격탄 - 각국 테러방지법, 인권침해 양산  
· <논평> 테러방지법, 한시법도 안된다  
2면 · <유엔인권위 소식> (1)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 
-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...기본권 제한, 반아랍주의

- 인권의 사각지대 대응감방 폐쇄 시급

**제2058호(2002. 3. 26)** /104

- 1면 · 사태해결 뒷전, 미복귀 전원해고 방침 - "정부,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"  
·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
2면 · <정회진의 인권이야기> 가해자의 인권?  
· <주간인권흐름> (3월 12일 ~ 3월 18일)

**제2059호(2002. 3. 27)** /106

- 1면 · 글리백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- 만성기 백혈병 환자, 행복추구권·건강권 침해  
·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- 국가인권위 농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  
2면 · <기획> 시효는 없다. 반인도적 국가범죄! ⑤  
- 한국도 '중대한 국가범죄'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
· <기획>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-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
3면 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2) 유엔인권위, 급작스런 일정 축소  
- 민간단체의 참여권, 심각한 타격 예상  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2) 팔-이 대결, 인민자결권·인종주의 논의 압도  
- "주권국가 내부의 원주민 자결권 문제도 상정돼야"

**제2060호(2002. 3. 28)** /109

- 1면 ·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의 죽음 - 유언처럼 남겨진 '생활보장 수급권 운동'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탈북자』  
2면 ·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- 병역거부 반대자들,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
· 입양인가? 아동매매인가? - 정부의 입양 촉진책, 총체적 부실

**제2061호(2002. 3. 29)** /111

- 1면 · 한나라당, "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" -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 
· 경찰, 최옥란 장애운동가의 마지막 길도 막다  
· <만화사랑방> 고 최옥란, 최저생계비 필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~  
2면 · <기획>시효는 없다. 반인도적 국가범죄! ⑥  
- '반인도적 범죄'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
· <기획>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-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

**제2062호(2002. 3. 30)** /113

- 1면 · 정부,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-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 
· <논평>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처  
· 장례행렬 노상감금, 고소  
2면 · 이달의 인권 (3월)

**제2063호(2002. 4. 2)** /115

- 1면 · 민사시효 논리,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- 고문사실은 인정...재심청구 길 열려  
· 수용자 또 사망,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 - 교도소 자궁암 2기 진단 후 치료없이 방치
- 2면 · <이창조의 인권이야기> 누가 국가인권위를 흔드는가?  
· <주간인권흐름> (3월 25일 ~ 4월 1일)

**제2064호(2002. 4. 3) /117**

- 1면 · “합의안 수용 여부, 총투표 통해 결정” - 발전조합원 노정합의에 실망감 드러내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』
- 2면 · <기획>시효는 없다. 반인도적 국가범죄! ⑦  
- 공소시효 배제입법,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
· <기획> (인터뷰)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인 이주영 의원

**제2065호(2002. 4. 4) /119**

- 1면 ·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- 불법적인 사진 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3) - ‘병역거부권’ 인정돼야...외교부 직원 발언
- 2면 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3) - 유엔인권위 파행...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
· “공장이 놀이터이자 집” - 정부,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 적용 안 해

**제2066호(2002. 4. 5) /121**

- 1면 · “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공격 중단하라” - 이 대사관 근처 집회, 입다문 우리 정부  
· 국가인권위 경고, ‘테러방지법 퇴장!’ - 인권위원장, 국회의장에게 법안 반대 뜻 전달  
· <만화사랑방> 경찰의 1인 시위 방해
- 2면 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4) 미-이,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 
- 인권고등판무관, “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.”  
· <올림-인권영화> 노란들판
- 3면 · <기고>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  
- 이스라엘·스위스·러시아·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

**제2067호(2002. 4. 9) /124**

- 1면 · 뇌종양 안고 1년 이상 복역 - 교도소에선 ‘스트레스’ 진단...의료시스템 정비 절실  
· 민주당,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- “수정안 마련, 통과시키겠다”
- 2면 · <육이은의 인권이야기>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 
· <주간인권흐름> (4월 1일 ~ 4월 8일)

**제2068호(2002. 4. 10) /126**

- 1면 ·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- 수지김 유족·인권사회단체, 국정원 앞 집회  
· 검찰,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- 피해자들,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
- 2면 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5)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 
- 파키스탄 주도,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
- 3면 · <기고>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

- “구금된 병역거부자들,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인권위에 통보 가능”

**제2069호(2002. 4. 11) /129**

- 1면 · 산업연수생, 파업으로 ‘휴가’ 쟁취 - 가족 사망 때도 고국 안 보내 줘 파업 촉발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』
- 2면 · 편견·공편에 지치는 ‘한부모 가정’ - 다양성 교육·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
·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- 범민련 최진수 씨 사전영장  
· 지문·얼굴정보 DB화 예정 - 정통부 발표에 “프라이버시 침해” 우려

**제2070호(2002. 4. 12) /131**

- 1면 · 경찰의 ‘알몸수색’, 인권위 진정돼 - 여성노조원 ‘생리 중’ 호소, 경찰 목살  
· <만화사랑방> 중동판 <홍부와 놀부>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
- 2면 · 이스라엘에 말한다 ‘학살 중단·군대철수’ - “한국 정부는 팔 지역 인도적 지원해야”  
· “발전회사 서약서 강요, 양심의 자유 침해” - 민주노총,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
- 3면 · <기고>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  
-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·정부대표단 만나며 중횡무진

**제2071호(2002. 4. 13) /134**

- 1면 · 정의실현 지렛대, 국제형사재판소 -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, 설립 박차  
· <논평>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
- 2면 · 집시법 개정안, 국회상정 예정 - 경총 개악청원, 정부 제한방침-법안통과 난항 예상  
· 국회, 테러방지법 논의 연기 - 야당 인권위 반대의견 신중 검토  
· <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>① 초심을 지키는 좁은 길

**제2072호(2002. 4. 16) /136**

- 1면 · 장애인 차별, 인권위 조치 속빈 강정 - 원상회복·사과 권고 없이, “앞으로 잘하라”뿐
- 2면 · <이우갑의 인권이야기>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
· <주간인권흐름> (4월 9일 ~ 4월 15일)

**제2073호(2002. 4. 17) /138**

- 1면 · “주5일근무,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” - 무늬만 노동시간 단축, 노동조건 후퇴 예상  
· 장애인단체, “차별 인정 넘어, 실질적 구제조치” 인권위에 촉구 -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
- 2면 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6) 한국의 테러방지법안, 유엔 인권위 발언대에  
-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·병역거부권 열띤 논쟁

**제2074호(2002. 4. 18) /140**

- 1면 · “꽃구경 대신 일자리름” - 장애인투쟁 주간 사흘째, 기만적 고용정책 규탄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떨꺼둥이』
- 2면 ·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·청소년 학대 - 정부,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“나 몰라라”  
· 장애·이주·비정규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- 노동권·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



제2075호(2002. 4. 19)

/142

- 1면 · 공익요원 권리투쟁, 3년 만에 -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인정  
· <만화사랑방> 진짜 장애인의 날은 어느 것일까요?
- 2면 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7) 유엔보고서, 강정구 교수·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 
-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
·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 농성 끝내

제2076호(2002. 4. 20)

/144

- 1면 · “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”-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
· <논평>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
- 2면 · “회사의 불법파견·산재요양신청 방해가 원인” - ‘대우조선 폭력사태 진상조사 결과’ 발표  
· 경찰청, ‘자해위험’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-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 사기 저하 운운

제2077호(2002.4.23)

/146

- 1면 · 철도노조 탄압, “정도껏 해야지” - 철도청, 징계방침 고수...‘무쟁의 선언’도 요구  
· “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?” - ‘강제추방’ 위협,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
- 2면 · <권두섭의 인권이야기> 그들이 정한 ‘법과 질서’  
· <주간인권흐름> (4월 15일 ~ 4월 22일)

제2078호(2002. 4. 24)

/148

- 1면 · 종료되지 않은 발전과업 - 거대한 회사 권력,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 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
- 2면 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8)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, 한국은 반대  
- 이번 회기 막바지, 결의안에 대한 투표 이어져  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(8) 유엔 사회권 포럼 올해부터 개최  
- ‘반세계화 투쟁’, 장내투쟁 교두보 기대  
·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- 국가인권위·인권단체, 유엔에 자료제출 가능

제2079호(2002. 4. 25)

/150

- 1면 ·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- 5년 간 173명 사망, 하루 14.2시간 노동  
· 국가인권위,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
- 2면 ·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? -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 
· 그룹 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-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 7백여명

제2080호(2002. 4. 26)

/152

- 1면 ·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-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
· <만화사랑방> 집배원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, 대우조선 노동자는 근골격계 직업병
- 2면 · “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” - 민관 등 관련자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
· 국제앰네스티,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- 인권 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

제2081호(2002. 4. 27)

/154

- 1면 · 저작권법 개정안, 정보접근권 위축 - 디지털도서관, 이용 제한...‘그럼 돈 들여 왜 하나?’  
· <논평>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현재의 재판
- 2면 · 대우조선 사태, 국가인권위 진정 - “사쪽, 노조원·비노조원 차별했다”  
·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, 효력정지 - 헌법재판소, 균형법시행령 “평등권 침해” 인정

제2082호(2002. 4. 30)

/156

- 1면 · 의문사 이윤성씨 프락치공작 증거발견 - 운동권 친구 최씨, “사망 한 달 전 만났다”
- 2면 · <이창조의 인권이야기> 아프지 않게 일하게 해달라  
· <주간인권흐름> (4월 23일 ~ 4월 29일)

제2083호(2002. 5. 1)

/159

- 1면 · 안에서 작업 중, 밖에서 출입구 통제 - 청평양수 발전소, 조합원 감시 심각  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노동보건현장활동! 나도 잘 할 수 있다
- 2면 · “국가인권위, 너무 소극적이다” - 법 제정 1주기 토론회, 인권단체 비판 봇물

제2084호(2002. 5. 2)

/161

- 1면 · 장애·피부색 뛰어넘어, ‘우린 하나’ - 발전회사, “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” 협박  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9) 제58차 유엔인권위, 파행 끝에 막 내려  
- 이스라엘,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
- 2면 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9) 멕시코, 대테러조치의 인권침해 방지 결의안 철회  
- 민간단체, 유엔인권위의 불투명한 회의진행에 회의
- 3면 · <이달의 인권> (4월)

제2085호(2002. 5. 3)

/164

- 1면 · 어린이는 5월에만 보호·육성되나? - 정부,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
· <만화사랑방> 어떤 부모가 아이를 방패막이로? -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!
- 2면 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10)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들  
- 파행운영에도 불구하고, 일부 결실도

제2086호(2002. 5. 4)

/166

- 1면 · 이주노동자, 노동비자 발급해야 - 정부의 ‘1년 출국준비기간’은 미봉책  
· <논평> ‘어린이 보호 종합대책’을 비판한다
- 2면 · <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> ② 전쟁과 인권  
· 공무원노조, 차봉천 위원장 징계 저지 - “법 자체가 잘못! 징계, 끝까지 막겠다”

제2087호(2002. 5. 7)

/168

- 1면 · 국보법 위반 전력자, ‘봉’인가 - 대법원·용역업체,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
· ‘지임차주’ 노동자 인정 판결 - 법원, 근기법 적극 해석...“실질적인 종속관계” 주목

- 2면 · <육이은의 인권이야기> 체벌? “몸으로 때우지, 뭐!”
- <주간인권흐름> (4월 29일 ~ 5월 6일)

**제2088호(2002. 5. 8) /170**

- 1면 · KBS ‘열린채널’은 닫히고 말았다 - <주민등록증을 찢어라> 편성 불가 결정
- <클릭 인권정보자료>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 관련 소식 모음
- 2면 ·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- 사회권위원회, 영국 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
-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, 환자는 뒷전 - 원가 분석 없이, 한 알 당 17,862원 고수

**제2089호(2002. 5. 9) /172**

- 1면 · ‘탈북자’ 가혹행위, 지난한 법정투쟁 - 고법, “증거부족” 기각...북한이주자, 대법상고
- 그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! -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
- 2면 · “민주화운동 왜곡 말라” - 계승연대, ‘동의대 사건’ 진상규명 요구
- 연대회의에서 준비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

**제2090호(2002. 5. 10) /174**

- 1면 · 테러 빙자, 집회에 고무탄 사용 - 법적 근거 애매, ‘테러상황’ 경계도 모호
- <만화사랑방> 「열린 채널」, 각종 규제와 순화조건들이 도사리고 있나?
- 2면 · 유아보육,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-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
-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-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12일째

**제2091호(2002. 5. 11) /176**

- 1면 · 수급권탈락자,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- “저소득층,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”
- <논평>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
- 2면 · <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> ③ 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
-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

**제2092호(2002. 5. 14) /178**

- 1면 · 현행 최저생계비, 위헌소송 제기 - 장애인 가구 추가 지출 외면...행복추구권 침해
- 선관위, 지문날인거부자 투표권 길 터 -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
- 2면 · <이우갑의 인권이야기> 경찰, 제발 좀 변해라!
- <주간인권흐름> (5월 7일 ~ 5월 13일)

**제2093호(2002. 5. 15) /180**

- 1면 ·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- 경찰, 최후진술·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
- <책임기> 『비전향장기수-0.5평에 갇힌 한반도』
- 2면 ·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 가입 촉구 - 외교부, “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”
- 말레이시아, 테러 핑계 기본권 침해 - 마하티르 방미 계기,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

**제2094호(2002. 5. 16) /182**

- 1면 · “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?” - 한총련, 검찰총장에 공개질의
- 테러방지법, 아직 안심할 수 없다 - 시민사회,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·통제력 키워야
- 2면 · 소년소녀가정, 1만3천명 넘어 - 가정도우미 제도 등 정서적 지원 절실
- 학생연합, 스승의 날 쓴소리 -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

**제2095호(2002. 5. 17) /184**

- 1면 · 시민, 경찰 부당함 신고했다 봉변 - 시경청문감사실, “경찰 위해서도 시민권리 찾아야”
- 2면 · “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” - ‘불법체류’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
- <만화사랑방> 게시판에 올린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~야!

**제2096호(2002. 5. 18) /186**

- 1면 · ‘에바다, 시설비리 척결 희망되자’ - 에바다 투쟁 2000일,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
- <논평>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
- 2면 · <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> ④ 다양한 소재의 국내작품 열 편
- “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” - 국립보건원, 부랴부랴 임시조치 마련

**제2097호(2002. 5. 21) /188**

- 1면 · ‘시효배제 특별법’ 입법청원 - “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?”
- “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” -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
- 2면 · <권두섭의 인권이야기>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?
- <주간인권흐름> (5월 13일 ~ 5월 20일)

**제2098호(2002. 5. 22) /190**

- 1면 · “월드컵 전, 장기분규 해결하라” - 금속 장기투쟁 노조들,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
- <책임기> 『양심적 병역거부』
- 2면 · 인권으로 그리는 세상 - 인권운동가 단 존스 그림 전시회 열려
- 태국의 광주항쟁 ‘검은 오월’ 10주기 - 진상보고서 미공개, 학살자 불처벌 여전

**제2099호(2002. 5. 23) /192**

- 1면 · “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” - 또 장애인 추락사망, 박경석 교장은 경찰서로 연행
- 인권단체, 국가인권위에 공개질의 - 설립과정과 운영의 민주성, 진정처리의 기준과 원칙 등
- 2면 · 학교현장, 성폭력에 속수무책 - 피해 여교사에 오히려 ‘품위손상’ 경고조치
- 13개 인권단체,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- 각계 대표들도 인권탄압 중지 촉구

**제2100호(2002. 5. 24) /194**

- 1면 · 의문사 토론, 관계기관 전원 불참 - ‘월드컵 때문에 바쁘다’, ‘우린 협조 잘한다’ 핑계
- <만화사랑방> 월드컵 맞이 정책 대반성 발표회 - 이렇게는 왜 못하노?
- 2면 ·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? - 26일 교사대회...교육부, 단호한 조치 운운
- ‘인권실태 조사단’, 청평발전처 방문 - “움츠러든 파업복귀자”...회사측, 개별 심문

제2101호(2002. 5. 25)

/196

- 1면 · 고사리 손 착취하는 축구공 - 노동착취·아동노동 만연 ... 초국적 스포츠기업 고발  
· <논평> 월드컵의 광풍
- 2면 · 국회,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-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
·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⑤ - '진짜 전쟁 영화' - 개막작 <아프간 전쟁>

제2102호(2002. 5. 28)

/198

- 1면 · 최종길 의문사, 타살 확정 - 의문사위, "소극적 저항도 민주화운동"  
· 정부 월드컵 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- 국가인권위, '인권현장 확인반' 운영
- 2면 · <이창조의 인권이야기> 파업이 가르쳐 주는 것  
· <주간인권흐름> (5월 20일 ~ 5월 27일)

제2103호(2002. 5. 29)

/200

- 1면 · 수사기관 영장없이, 통신활동 추적가능 - 통신비밀보호법 등, '통신비밀 침해' 위헌소송  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'성매매와 인권' 자료 모음
- 2면 · 지문날인 거부자, 참정권 보장 촉구 - 제2의 지문날인 불복중, '주민증 안쓰기' 운동 시작

제2104호(2002. 5. 30)

/202

- 1면 · '양지마을' 사건, 국가배상 판결 - 불법납치·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
· 시효배제입법 여론 확산...최종길 유족, 국가배상청구 - "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?"
- 2면 · 제6회 인권영화제 상영일정

제2105호(2002. 5. 31)

/204

- 1면 ·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, 경찰에 연행 - 1일 영풍 부사장, 노조와의 면담 옹하기로  
· <만화사랑방> 모두들 인권영화제 한번 가서 보시구려~
- 2면 · 유럽 극우파 확산, 이민정책 보수화 - 아침마다 프랑스 경찰, 난민희망자 추격전  
· 제6회인권영화제·단존스 그림전시회 개막 -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응시한다

제2106호(2002. 6. 1)

/207

- 1면 · 정통윤, '군대반대' 홈페이지 합구령 - 2개월 이용정지...“자의적 해석, 폭력적 발상”  
· <논평> 시효배제입법, 지체될 수 없다
- 2면 · 이달의 인권 (5월)

제2107호(2002. 6. 4)

/209

- 1면 · 지문날인거부자, 신원증명 거부당해 - 참정권 운동 박차...“모집! 신원증명 희망자”  
· '군대반대' 홈페이지 결국 폐쇄
- 2면 · <육이은의 인권이야기> 교과서와 다른 현실...국보법을 폐지하라  
· <주간인권흐름> (5월 27일 ~ 6월 3일)

제2108호(2002. 6. 5)

/211

- 1면 · '사북항쟁' 재평가 서둘러야 - '군부로부터 심한 고문',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열어  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'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' 자료 모음
- 2면 · 성전환자 호적변경, 입법논의 한창 - 김홍신 의원실, 7월 발의 계획...의견수렴 절실

제2109호(2002. 6. 6)

/213

- 1면 · 월드컵시설 주변, 노조집회 67곳 불허 - 경찰, 특별치안구역 악용 ... 1인시위도 막아  
· '장세동 범죄' 공소권 없음 결정
- 2면 · 5일,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- 올해의 인권영화상 <먼지, 사북을 묻다>  
· "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?" - 효과 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

제2110호(2002. 6. 8)

/215

- 1면 · '병원 감염', 경계 경보 - 환자들, 집단감염에 손배소송...병원, '보복성' 퇴원 압력  
· <논평> 불평등한 과거청산
- 2면 · 교사해임, 부당노동행위 판정 - 경북지노위, 해임교사들 복직명령  
· <만화사랑방>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구?

제2111호(2002. 6. 11)

/217

- 1면 ·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, 장례 치러 - "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"  
· 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- 국립보건원, 첫 자문회의 열며 대책 고심
- 2면 · <이우갑의 인권이야기> 창해와 일남이  
· <주간인권흐름> (6월 3일 ~ 6월 10일)

제2112호(2002. 6. 12)

/219

- 1면 · "6·13, 남의 잔치"...투표배제 계층 많아 - 지문날인 거부자·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
· 공소시효 문제, 국가인권위 나선다 - 인권위원장, 청문회 약속...소급입법엔 신중
- 2면 · 시그네틱스 노동자, 집단 단식농성 - 파주이전 약속 이행 요구...회사는 꿈쩍 안 해  
·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목과 앓겠다 - 종교·여성계,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

제2113호(2002. 6. 13)

/221

- 1면 ·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- 성모병원, 직권중재 악용 '불법파업' 유도  
· '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' 학술토론회 -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
- 2면 · 등급분류 보류제도, 위헌 후에도 온존 - 비디오물·게임물에 적용 여전, 또 위헌 논란

제2114호(2002. 6. 15)

/223

- 1면 · 주한미군, 주민의 생명은 관심 밖 -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, 안전대책 시급  
· <논평>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
- 2면 ·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- 행자부, 신원증명 거부...“선관위 뿔” 책임회피  
· <만화사랑방> 직권중재 마귀 - 그대를 감옥에 보낼 것을 명하노라

제2115호(2002. 6. 18)

/225

- 1면 · 부산교도소 수용자, 징벌 중 사망 - “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닷” 논란
-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- “규제냐, 완화냐” 논란 속, 실종된 검열 문제
- 2면 · <권두섭의 인권이야기> ‘불법’ 파견에 ‘합법’ 파견법을 적용한다?
- <주간인권흐름> (6월 10일 ~ 6월 16일)

**제2116호(2002. 6. 19) /227**

- 1면 · “대입연소자 순 합격처리는 차별” - 국가인권위, 탈락자에 대한 합격처리 권고
- <클릭 인권정보자료>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매뉴얼 ‘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’
- 2면 · 노사정위 ‘비정규직 대책’ 어디로 가나? - 비정규직 확산·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
-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- 아동권 조약 2차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

**제2117호(2002. 6. 20) /229**

- 1면 · <성명>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
- 인권단체 공개 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
- 2면 · 정부의 난민정책, 인권보호 뒷전 - ‘박해’ 입증 책임 엄격,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
- 경찰, “소란 우려”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- 대학생들,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 구금

**제2118호(2002. 6. 21) /231**

- 1면 · 경찰, 피의자 폭언·상해 - 권한 남용 논란...오산파출소, ‘정당한 공무집행’ 항변
- <만화사랑방> ‘불법집회’라고 강제로 노상구금을 했다고라?
- 2면 · 교육부, ‘종합검진 전환계획’ 찬반 논란 - ‘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’ 비판 등
- 국립보건원,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실시 - 보건의료단체 일단 환영, “빨리 보험적용해야”

**제2119호(2002. 6. 22) /233**

- 1면 · ‘일체피해자’, 한일협정 알 권리 요구 -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
- <논평> ‘붉은 악마’를 부추기지 말라
- 2면 · 재능교육, 교섭 지연...노조 무력화 시도 - “단협 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” 문서 요구
- 아프리카 인권위,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
- 나이지리아 정부·석유회사 ‘셸’ 공조, 건강권·환경권·생존권 등 침해

**제2120호(2002. 6. 25) /235**

- 1면 · 월드컵4강 전날, 때아닌 공권력 투입 - 사복경찰 180명, 병원파업 노조간부 연행 시도
- 7월 4일 ‘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’ 열려 - 민간인 학살 여론확산 시도
- 2면 · <이창조의 인권이야기> 한 젊은 검사의 항변
- <주간인권흐름> (6월 17일 ~ 6월 24일)

**제2121호(2002. 6. 26) /237**

- 1면 · 인천지역,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- 민주택시연맹, ‘사납금제’는 불법...파업 34일째
- <책임기> 『‘위안부’가 아니라 ‘성노예’이다』
- 2면 · “최저임금 현실화하라” - 비정규직·중소영세노동자, 경총 앞 천막농성

- 월드컵, 교과서 내용도 좌지우지 - 교육부, ‘조국애·질서의식’ 부각...2학기 삼입계획
-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연행

**제2122호(2002. 6. 27) /239**

- 1면 ·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- 의문사위, 고 한희철 ‘의문사’ 인정
- 미군, 사과하랬더니 물대표 싸 -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, 1차 범국민대회 열려
- 2~3면 · <논평> ‘붉은 악마’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

**제2123호(2002. 6. 28) /242**

- 1면 · ‘불온통신’ 조항 위헌 결정 - 헌재, ‘표현의 자유 침해’ 인정
-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, 미군측 고소
- <만화사랑방> ‘월드컵 신화’가 교과서에 실릴 듯 - 사진은 이걸로...!
- 2면 · “먹지 못하면, 약이 아니다” - 백혈병 환자들, 노바티스 앞 항의농성
-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, 국경넘은 연대 - 구속노동자 석방, 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

**제2124호(2002. 6. 29) /244**

- 1면 · 최저임금,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- 월514,150원, 저임노동자 방치...공공근로에도 못미쳐
- <논평> 노바티스, ‘죽음의 흥정’을 중단하라
- 2면 ·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 규정 -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

**부록 인권하주소식 합본 18호 색인 /247**



소수자 인권

인권 보호 법첩

# 색인 찾아보기

## <경제·사회·문화적 권리>

- 노동 /248-251
  - 비정규노동
  - 노동권·노동조건
  - 노동자 감시
  - 노동건강
  - 노동조합결성권/파업권
  - 관련 사건
- 교수노조/공무원노조
  - '노동 일반' 관련 사례
- 대용 C.C./대우자동차/대우조선
- 레미콘/발전/보건의료산업/삼성
- 사회복지 노동자/시그네틱스(영풍)
- 철도
- 생존권/빈곤 /251-252
  - 여성장애인 최옥란
- 사회복지/사회보장 /252
- 주거권 /252
- 건강권 /252-253
  - 글리백·에이즈·재소자 의료권
- 교육권 /253
- 과학·문화 /253-254
  - 지적재산권과 인권
- 농민 /254

## <시민·정치적 권리>

- 교문·가혹행위 /254-255
  - 경찰폭력·진주 총기사고
  - 군폭력·의문사
- 신체의 자유 /255
  - 불심검문
-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/255
  - 피의자·피고인의 권리
  - 변호인 접견권
- 프라이버시 /256
  - 전자신분증·사찰/도청/감청
  - 지문날인

- 사상·양심의 자유 /256-258
  - 준법서약
  - 국가보안법
  - 관련 사건 · 조작간첩 사건
  - 보안관찰법
  - 장기수·양심수
  -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
- 표현의 자유 /258
  -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
- 집회·결사의 자유 /259
  -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  - 한총련
- 참정권 /259-260

## <소수자>

- 이주노동자 /260
- 난민 /260
- 제한화교 /260
- 제외동포 /260
- 여성 /260-261
  - 성폭력·성희롱/가정폭력
  - 성매매·여성노동권
- 어린이·청소년 /261-262
  - 아동학대/체벌
  - 청소년 노동·보육·교육
- 장애인 /262-263
  - 고용·이동권
- 동성애자 /263
- 성전환자 /263

## <국제>

- 유엔인권기구 /263-264
  -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
- 국제형사법원(재판소) /264
- 지역인권상황 /264-265
  - 아시아·미국·유럽·아프리카

## <특별 주제>

- 국가기구와 인권 /265-266
  - 국가인권위원회
  - 진정 관련 · 기타
- 시설수용자와 인권 /266
  - 에바다 사건 · 양지마을 사건
- 감옥 수용자와 인권 /266-267
  - 의료문제
- 신자유주의와 인권 /267
  - 민영화
- 미국과 인권 /268
  - 주한미군범죄
- 과거청산/불처벌 /268-270
  -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
  -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
  - 의문사
  -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
  - 관련 사례
  - 삼청교육대 · 수지김 사건
- 테러방지법 /270-271
- 인권교육 /271
- 월드컵과 인권 /271
- 평화 /271

## <기획> /272

- 펠리핀 인권기행
- 시효는 없다. 반인도적 국가범죄!
-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

## <인권하루소식 고정란>

- 논평 /272-273
- 인권이야기 /273-274
- 만화사랑방 /274-275
- 인권정보자료 /275
- 인권영화 /276
- 주간인권흐름 /276-277

# 경제 · 사회 · 문화적 권리

## 노동

### ▷비정규노동

- 사용주의 불법고용, 노동자가 뒷감당 - 행정법원, 불법파견에게 '해고'란 없다?(02. 2. 7 2면 2029호) /46
- 장애 · 이주 · 비정규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- 노동권 · 생활권 10대 요구(02. 4. 18 2면 2074호) /141
- “불법파견 ·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원인” - ‘대우조선 폭력사태 조사 결과’(02. 4. 20 2면 2076호) /145
- <권두섭의 인권이야기> ‘불법’ 파견에 ‘합법’ 파견법을 적용한다?(02. 6. 18 2면 2115호) /226
- 노사정위 ‘비정규직 대책’ - 비정규직 확산 · 불법파견 양성화 우려(02. 6. 19 2면 2116호) /228

### ▷노동권 · 노동조건

- 정부의 주5일제 방안, 근기법 못 미쳐 -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(02. 2. 15 2면 2032호) /51
- “주5일근무, 노사정 야합 중단” - 무늬만 노동시간 단축, 노동조건 후퇴 예상(02. 4. 17 1면 2073호) /138
- “최저임금 현실화하라” - 비정규직 · 중소기업노동자, 경총 앞 천막농성(02. 6. 26 2면 2121호) /238
- 최저임금,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- 월514,150원, 저임노동자 방치(02. 6. 29 1면 2124호) /244

### ▷▷노동자 감시

- CCTV 설치의 사용자의 권리? - 노동부,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(02. 1. 16 1면 2013호) /13
- 대용C.C. 부당징계 인정 - 부당노동행위는 인정 안해 노조 반발(02. 2. 23 1면 2038호) /63
- 민주노총 단협모범안, 인권조항 눈길 - 노동자 감시규제 및 차별행위금지 신설(02. 3. 14 2면 2050호) /88
- 안에서 작업 중, 밖에서 출입구 통제 - 청평양수 발전소, 조합원 감시 심각(02. 5. 1 1면 2083호) /159

### ▷▷노동건강

- “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” -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(02. 1. 17 1면 2014호) /15
-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- 검진대상 중 94% 근골격계 질환, 회사 은폐 의혹(02. 3. 7 1면 2045호) /77
- 공익요원 권리투쟁, 3년 만에 - 고된 노역에 연골과열 공무상 재해인정(02. 4. 19 1면 2075호) /142
- “불법파견 ·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원인” - ‘대우조선 폭력사태 조사 결과’(02. 4. 20 2면 2076호) /145
-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- 5년 간 173명 사망, 하루 14.2시간 노동(02. 4. 25 1면 2079호) /150
- 제2의 윈진레이온 사태인가? -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(02. 4. 25 2면 2079호) /151
- <만화사랑방> 집배원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, 조선 노동자는 근골격계 직업병(02. 4. 26 1면 2080호) /152
- 대우조선 사태, 국가인권위 진정 - “사쪽, 노조원 · 비노조원 차별했다”(02. 4. 27 2면 2081호) /155
- <이창조의 인권이야기> 아프지 않게 일하게 해달라(02. 4. 30 2면 2082호) /157
- <클릭 인권정보자료> 노동보건현장활동! 나도 잘 할 수 있다(02. 5. 1 1면 2083호) /159

### ▷노동조합결성권 · 교섭 · 파업권

- 민주노총 단협모범안, 인권조항 눈길 - 노동자감시 규제와 차별행위 금지 신설(02. 3. 14 2면 2050호) /88
- <권두섭의 인권이야기> 그들이 정한 ‘법과 질서’(02. 4. 23 2면 2077호) /147
- <권두섭의 인권이야기>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?(02. 5. 21 2면 2097호) /189
- “월드컵 전, 장기분규 해결하라” - 금속 장기투쟁노조,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(02. 5. 22 1면 2098호) /190
- <이창조의 인권이야기> 파업이 가르쳐 주는 것(02. 5. 28 2면 2102호) /199
-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, 국경넘은 연대 - ‘구속노동자 석방, 공무원노조 인정’(02. 6. 28 2면 2123호) /243

### ▷▷관련 사건

-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? - 교사대회...교육부, 단호한 조치 운운(02. 5. 24 2면 2100호) /195
- 교사해임, 부당노동행위 판정 - 경북지노위, 해임교사들 복직명령(02. 6. 8 2면 2110호) /216
- 병원 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- 성모병원, 직권중재 악용 ‘불법파업’ 유도(02. 6. 13 1면 2113호) /221
- <만화사랑방> 직권중재 마귀 - 그대를 감옥에 보낼 것을 명하노라(02. 6. 15 2면 2114호) /224

### ▷▷▷교수노조

- 대학교수의 비판기능 질식 - 교수단체들, 계약제 · 연봉제 저지투쟁(02. 1. 17 2면 2014호) /16
- “공무원 ·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” - 정부, 공무원 노조 ‘불법’ 고집(02. 3. 21 1면 2055호) /98

### ▷▷▷공무원노조

- “공무원 ·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” - 정부, 공무원 노조 ‘불법’ 고집(02. 3. 21 1면 2055호) /98
- 공무원노조, 차봉천 위원장 징계 저지 - “법 자체가 잘못! 징계, 끝까지 막겠다”(02. 5. 4 2면 2086호) /167
-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, 국경넘은 연대 - ‘구속노동자 석방, 공무원 노조 인정’(02. 6. 28 2면 2123호) /243

### ▷▷‘노동 일반’ 관련 사례

- 서울대, 구두약속 무시 31명 해고 - 시설관리 노조,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(02. 1. 10 2009호 2면) /6
- <기고>단식을 하는 이유(동아자동차운전학원) -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(02. 1. 12 2면 2011호) /10
- 흑자경영에도 393명 정리해고 위기 - 사회단체, 대우자관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(02. 2. 6 1면 2028호) /43
- 환경미화원, “약속은 지켜야지” - 안산시청, 청소대행업체 편들기 의혹(02. 2. 8 1면 2030호) /47
- ‘희망퇴직’ 압력에 노동자 사망 - 대우자관, 요양 중에도 전화해 퇴직 종용(02. 2. 15 1면 2032호) /51
- 어느 경기보조원의 황당한 해고 - 회사, “조합원들은 근무시키지 마라” 지시(02. 2. 21 2면 2035호) /58
-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분사반대 파업 - 여성의날, 청소여성노동자 인간선언(02. 3. 8 2046호 1면) /79
- 국보법위반 전력자, ‘봉’인가 - 대법원 · 용역업체, 해고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(02. 5. 7 1면 2087호) /168
- 재능교육, 교섭지연...노조무력화 시도 - “단협 체결시 총회 않겠다” 문서 요구(02. 6. 22 2면 2119호) /234
- 인천지역,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- 민주택시, ‘사납금제’ 불법...파업 34일째(02. 6. 26 1면 2121호) /237

### ▷▷▷대용 C.C.

- CCTV 설치하는 사용자의 권리? - 노동부,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(02. 1. 16 1면 2013호) /13
- 대용C.C. 부당징계 인정 - 부당노동행위는 인정 안해 노조 반발(02. 2. 23 1면 2038호) /63

### ▷▷▷대우자동차

- 대우차 해고자, 상처와 회한의 1년 - 공장으로 돌아가리라“, 복지기원제 열어(02. 2. 20 1면 2035호) /57

### ▷▷▷대우조선

-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- 검진대상 중 94% 근골격계 질환, 회사 은폐 의혹(02. 3. 7 1면 2045호) /77
- “불법파견·산재요양신청 방해가 원인” - ‘대우조선 폭력사태 진상조사’ 발표(02. 4. 20 2면 2076호) /145
-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? -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(02. 4. 25 2면 2079호) /151
- 대우조선 사태, 국가인권위 진정 - “사쪽, 노조원·비노조원 차별했다”(02. 4. 27 2면 2081호) /155

### ▷▷▷레미콘

- 레미콘 노동자 날개 펴 그 날까지 - 강추위 속 명동성당 노숙농성 계속 (02. 1. 8 1면 2007호) /1
- 노조탄압사용주, 국민훈장 수상 - 선정과정에서 불법·부당노동 행위 고려안돼(02. 1. 29 1면 2022호) /31
- “사용자들은 하나도 잘못없다?” - ‘레미콘노조’,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마무리(02. 3. 1 1면 2042호) /71
- ‘지입차주’ 노동자 인정판결 - 법원, 근기법 적극 해석...“실질적 종속관계” 주목(02. 5. 7 1면 2087호) /168

### ▷▷▷발전

- 철도·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- “민영화하면 요금 인상, 사고 빈발”(02. 2. 26 1면 2039호) /65
- “해외매각, 전력공급 불안 낳는다” - 발전노조 3일째 파업 지속, 철도는 타결(02. 2. 28 1면 2041호) /69
-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?(02. 2. 28 1면 2041호) /69
- “민영화방침 유보, 공론화가 우선” - 발전소 매각 문제 지적 긴급 토론회 열려(02. 3. 6 2면 2044호) /76
- 발전소 매각반대, 9백88인 시국선언 - “민영화 강행방침 철회, 공론화 촉구”(02. 3. 8 1면 2046호) /79
- 조계사 신도회, 종로서장 파면요구 - “법당난입·발전노조원 연행은 만행”(02. 3. 12 1면 2048호) /83
- 경찰,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- 불법체포·주거침입·복귀서 강요 등(02. 3. 13 1면 2049호) /85
- <만화사랑방> 부시스턴 회사와 오노스런 경찰... (02. 3. 15 1면 2051호) /89
- 발전회사,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-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(02. 3. 22 1면 2056호) /100
- 사태해결 뒷전, 미복귀 전원해고 방침 - “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”(02. 3. 26 1면 2058호) /104
-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(02. 3. 26 1면 2058호) /104
- “합의안 수용 여부, 총투표 통해 결정” - 발전조합원 노정합의에 실망감 드러내(02. 4. 3 1면 2064호) /117
- “서약서 강요, 양심의 자유 침해” -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(02. 4. 12 2면 2070호) /132
- 종로되지 않은 발전파업 - 거대한 회사 권력,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(02. 4. 24 1면 2078호) /148
- 안에서 작업 중, 밖에서 출입구 통제 - 청평양수 발전소, 조합원 감시 심각(02. 5. 1 1면 2083호) /159
- 장애·피부색 뛰어넘어, ‘우린 하나’ - 발전회사, “집회 가면 불이익” 협박(02. 5. 2 1면 2084호) /161
- 13개 인권단체,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- 각계 대표, 인권탄압 중지 촉구(02. 5. 23 2면 2099호) /193
- ‘인권실태 조사단’, 청평발전처 방문 - “움츠러든 파업복귀자”...회사, 개별심문(02. 5. 24 2면 2100호) /195
-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연행(02. 6. 26 2면 2121호) /238

### ▷▷▷보건의료산업

- 병원 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- 성모병원, 직권중재 악용 ‘불법파업’ 유도(02. 6. 13 1면 2113호) /221
- <만화사랑방> 직권중재 마귀 - 그대를 감옥에 보낼 것을 명하노라(02. 6. 15 2면 2114호) /224
- 월드컵4강 전날, 공권력 투입 - 사복경찰 180명, 병원파업 노조간부 연행 시도(02. 6. 25 1면 2120호) /235

### ▷▷▷삼성

- 삼성SDI 노동자 실종 보름째 - 납치·폭행·회유, 노동운동 씨말리기(02. 1. 15 1면 2012호) /11
-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(02. 1. 30 1면 2023호) /33
- 삼성노동자 또 자살, 이유는? - 구조조정에 따른 정신적 압박 못 이겨(02. 1. 30 2면 2023호) /34
- <만화사랑방> “수퍼맨이 못된 삼성맨들은 더이상 필요가 없지~”(02. 2. 1 1면 2025호) /37

### ▷▷▷사회복지 노동자

- 사회복지 종사자, “우리에게도 노동권을” - 정립회관, 수당 미지급·부당해고(02. 1. 16 2면 2013호) /14
- <만화사랑방> 사회복지사 심청던~!(02. 1. 18 1면 2015호) /17
- <논평>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라(02. 1. 19 1면 2016호) /19

### ▷▷▷시그네틱스(영풍)

- 영풍그룹에 맞서 파업 1백 88일 - 1백7명 집단해고에도 ‘시그’투쟁 계속된다(02. 1. 25 2면 2020호) /28
-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- 강서구청,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(02. 2. 9 2면 2031호) /50
-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, 연행 - 1일 영풍 부사장, 노조와의 면담 용하기로(02. 5. 31 1면 2105호) /204
- 시그 노동자, 집단 단식농성 - 파주이전 약속 이행 요구...회사는 꿈쩍 안 해(02. 6. 12 2면 2112호) /220

### ▷▷▷철도

- “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” -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(02. 1. 17 1면 2014호) /15
- 철도·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- “민영화하면 요금 인상, 사고 빈발”(02. 2. 26 1면 2039호) /65
- “해외매각, 전력공급 불안 야기” - 발전산업노조 3일째 파업 지속, 철도는 타결(02. 2. 28 1면 2041호) /69
- 철도청, 파업 후 대규모 고소고발 - ‘징계최소화’ 합의 위배, 철도노조 강력 반발(02. 3. 5 1면 2043호) /73
- 철도노조 탄압, “정도껏 해야지” - 철도청, 징계방침...‘무쟁의 선언’도 요구(02. 4. 23 1면 2077호) /146

### 생존권/빈곤

- <필리핀 인권기행>③ 가난과의 전쟁, 전쟁 속의 가난(02. 2. 27 2면 2040호) /68
- 노점상,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종고 - “정부,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”(02. 3. 15 1면 2051호) /89
- 수급권탈락자,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- “저소득층,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”(02. 5. 11 1면 2091호) /176
- 현행 최저생계비, 위헌소송 - 장애인 가구 추가 지출 외면...행복추구권 침해(02. 5. 14 1면 2092호) /178



### ▷여성장애인 최옥란

-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의 죽음 - 유언처럼 남겨진 '생활보장 수급권 운동'(02. 3. 28 1면 2060호) /109
- 경찰, 최옥란 장애인운동가의 마지막 길도 막다(02. 3. 29 1면 2061호) /111
- <만화사랑방> 고 최옥란, 최저생계비 필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~(02. 3. 29 1면 2061호) /111
- <논평>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(02. 3. 30 1면 2062호) /113
- 고 최옥란 씨 장례행렬 노상감금, 고소(02. 3. 30 1면 2062호) /113

### 사회복지/사회보장

- 사회복지 종사자, "우리에게도 노동권을" - 정립회관, 수당 미지급· 부당해고(02. 1. 16 2면 2013호) /14
- <논평>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라(02. 1. 19 1면 2016호) /19
-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의 죽음 - 유언처럼 남겨진 '생활보장 수급권 운동'(02. 3. 28 1면 2060호) /109
- <논평>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(02. 3. 30 1면 2062호) /113
- 현행 최저생계비, 위헌소송 -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...행복추구권 침해(02. 5. 14 1면 2092호) /178

### 주거권

- 발전회사,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-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(02. 3. 22 1면 2056호) /100
- 수급권탈락자,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- "저소득층,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"(02. 5. 11 1면 2091호) /176

### 건강권

- 보험료 결정,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- 사회단체,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거부(02. 1. 22 1면 2017호) /21
-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- 형식적인 법조항, 구체적인 사업 미흡(02. 3. 14 2면 2050호) /88
- '병원 감염', 경계 경보 - 환자들, 집단감염에 손배소송...병원, '보복성' 퇴원 압력(02. 6. 8 1면 2110호) /215
- 교육부, '종합검진 전환계획' 찬반 논란 - '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' 비판 등(02. 6. 21 2면 2118호) /232
- 아프리카 인권위,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- 나이지리아 정부·석유회사 '셸' 공조, 건강권·환경권·생존권 등 침해(02. 6. 22 2면 2119호) /234

### ▷글리백

- 노바티스, 글리백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- 의약품 접근권 위해 '강제실시'해야...(02. 1. 9 2008호 2면) /4
- <해설> 강제실시란?(02. 1. 9 2008호 2면) /4
- 글리백, 국내최초 '강제실시권' 청구 -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 무한이윤추구 제동(02. 2. 2 1면 2026호) /39
- 글리백 투쟁, "이윤보다 생명을" - 한국노바티스 앞, 강제실시 촉구대회(02. 2. 6 2면 2028호) /44
- <만화사랑방> 노바티스, "돈이 없다면 구해줄 수 없소!"(02. 2. 8 1면 2030호) /47
- 글리백 보험적용 제외 헌소 - 만성기 백혈병 환자, 행복추구권·건강권 침해(02. 3. 27 1면 2059호) /106

- <클릭 인권정보자료> 글리백을 통해 본 특허권(02. 4. 24 1면 2078호) /148
- 정부 글리백 약가 논의, 환자 뒷전 - 원가 분석 없이, 한 알 당 17,862원 고수(02. 5. 8 2면 2088호) /171
- "먹지 못하면, 약이 아니다" - 백혈병 환자들, 노바티스 앞 항의농성(02. 6. 28 2면 2123호) /243
- <논평> 노바티스, '죽음의 흥정'을 중단하라(02. 6. 28 1면 2124호) /244

### ▷에이즈

- "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" - 국립보건원, 부랴부랴 임시조치 마련(02. 5. 18 2면 2096호) /187
- 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- 국립보건원, 첫 자문회의 열며 대책 고심(02. 6. 11 1면 2111호) /217
- 국립보건원,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- 보건단체 일당 환영, "빨리 보험적용"(02. 6. 21 2면 2118호) /231

### ▷재소자 의료권

- 구치소 수감자 또 사망(02. 1. 9 2008호 1면) /3
- 서울구치소 사망자 1차 부검결과 발표 - 구치소측 의료조치 적절 여부 초점(02. 1. 10 2면 2009호) /6
- 서울 구치소, 중환자 여러 시간 방치... 죽음으로 - 구치소 내 의료 문제 노출(02. 1. 11 2면 2010호) /8
-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-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(02. 1. 17 2면 2014호) /16
- "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" - 오늘,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(02. 1. 24 2면 2019호) /26
-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사망 - 국가인권위 능장 대응, 유족들 원성(02. 3. 27 1면 2059호) /106
- 수용자 또 사망,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 - 교도소 자궁암 2기 진단 후 방치(02. 4. 2 1면 2063호) /115
- 뇌종양, 1년 이상 복역 - 교도소에선 '스트레스' 진단...의료시스템 정비 절실(02. 4. 9 1면 2067호) /124

### 교육권

- 대학교수의 비판기능 질식 - 교수단체들, 계약제·연봉제 저지투쟁(02. 1. 17 2면 2014호) /16
- <논평> 비전 2011! 지나라한 교육과과 정책(02. 2. 16 1면 2033호) /53
- <필리핀 인권기행>① 무너진 공교육, 방치된 아이들(02. 2. 22 2면 2037호) /62
-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- '언발에 오줌누기식', 교육개혁 역행(02. 3. 21 2면 2055호) /99
-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? -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(02. 3. 21 2면 2055호) /99
- 학교현장, 성폭력에 속수무책 - 피해 여교사에 오히려 '품위손상' 경고조치(02. 5. 23 2면 2099호) /193
- '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' 학술토론회 -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(02. 6. 13 1면 2113호) /221
- 월드컵, 교과서 내용 좌지우지 - '조국애·질서의식' 부각...2학기 삼입계획(02. 6. 26 2면 2121호) /238
-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 규정 -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(02. 6. 29 2면 2124호) /245

### 과학·문화

#### ▷지적재산권과 인권

- 노바티스, 글리백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- 의약품 접근권 위해 '강제실시'해야...(02. 1. 9 2008호 2면) /4

· <해설> 강제실시란?(02. 1. 9 2008호 2면)	/4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'정보접근권'(02. 1. 17 1면 2014호)	/15
· 글리백, 국내최초 '강제실시권' 청구 -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 무한이윤추구 제동(02. 2. 2 1면 2026호)	/39
· 글리백 투쟁, "이윤보다 생명을" - 한국노바티스 앞, 강제실시 촉구대회(02. 2. 6 2면 2028호)	/44
· <만화사랑방> 노바티스, "돈이 없다면 구해줄 수 없소!"(02. 2. 8 1면 2030호)	/47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글리백을 통해 본 특허권(02. 4. 24 1면 2078호)	/148
· 저작권법 개정안, 정보접근권 위축 - 디지털도서관, 이용 제한(02. 4. 27 1면 2081호)	/154
· 정부 글리백 약가 논의, 환자 뒷전 - 원가 분석 없이, 한 알 당 17,862원 고수(02. 5. 8 2면 2088호)	/171
· "먹지 못하면, 약이 아니다" - 백혈병 환자들, 노바티스 앞 항의농성(02. 6. 28 2면 2123호)	/ 243

## 농민

· "정광훈 전농 전 의장 석방하라" - 민주노총, 전빈련 등 석방촉구 성명 이어져(02. 2. 21 2면 2036호)	/60
--	-----

## 시민 · 정치적 권리

### 고문 · 가혹행위
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8)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, 한국은 반대 - 이번 회기 막바지, 결의안에 대한 투표 이어져(02. 4. 24 2면 2078호)	/149
· '탈북자' 가혹행위, 법정투쟁 - 고법, "증거부족" 기각...북한이주자, 대법상고(02. 5. 9 1면 2089호)	/172
· '사북항쟁' 재평가 서둘러야 - '군부로부터 심한 고문', 피해자들 입열어(02. 6. 5 1면 2108호)	/211
· 부산교도소 수용자, 징벌 중 사망 - "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" 논란(02. 6. 18 1면 2115호)	/225

### ▷경찰폭력

· 경찰, "시위에 '상여' 무조건 안 돼" - 집회장 난입 ... 방패로 찍고, 상여 부쉬(02. 1. 23 2면 2018호)	/24
· 무시방한 반대, 각계각층 총집결 - 경찰 집회장 난입, 참가자 여럿 부상(02. 2. 21 1면 2036호)	/59
· "경찰이 두눈 찌르고 안면 가격" - 민중연대, "경찰 폭력에 법적대응"(02. 2. 22 1면 2037호)	/61
· 조계사 신도회, 종로서장 파면요구 - "법당난입 · 발전노조원 연행은 만행"(02. 3. 12 1면 2048호)	/83
· 경찰, 최옥란 장애인운동가의 마지막 길도 막다(02. 3. 29 1면 2061호)	/111
· 고 최옥란 씨 장례행렬 노상감금, 고소(02. 3. 30 1면 2062호)	/113
·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(02. 5. 11 2면 2091호)	/177
· 시민, 경찰 부당함 신고했다 봉변 - "경찰 위해서도 시민권리 찾아야"(02. 5. 17 1면 2095호)	/184
·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묵과 않겠다 - 종교 · 여성계,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(02. 6. 12 2면 2112호)	/220

· 경찰, 피의자 폭언 · 상해 - 권한남용 논란...오산파출소, '정당한 공무집행'(02. 6. 21 1면 2118호)	/231
---	------

### ▷▷진주 총기사고

· 진주경찰서, 총기 사건 검찰 송치 - 조작의혹 여전... 유족, 장례 안치러(02. 1. 19 2면 2016호)	/20
· 진주총기사건, 조작증거 발견 - 경찰 발사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탄흔 발견(02. 1. 22 1면 2017호)	/21

### ▷군폭력 · 의문사

· 무장병력, 군 의문사 유족 감금(02. 1. 23 2면 2018호)	/24
· '김훈 중위 사망사건' 손배 기각 - 유가족, "이것도 재판이냐" 법정 오염(02. 2. 1 1면 2025호)	/37
· 의문사 이윤성씨 프락치공작 증거발견 - 친구 최씨, "사망 한달 전 만났다"(02. 4.30 1면 2082호)	/156
·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- 의문사위, 고 한희철 '의문사' 인정(02. 6. 27 1면 2122호)	/239

## 신체의 자유(자의적인 체포와 구금)

· 경찰,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- 불법체포 · 주거침입 · 복귀서 강요 등(02. 3. 13 1면 2049호)	/85
· 경찰, 최옥란 장애인운동가의 마지막 길도 막다(02. 3. 29 1면 2061호)	/111
· 고 최옥란 씨 장례행렬 노상감금, 고소(02. 3. 30 1면 2062호)	/113

### ▷불심검문

· <이우갑의 인권이야기> 경찰, 제발 좀 변해라!(02. 5. 14 2면 2092호)	/179
--	------

##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

· 정신지체인 성폭력, 대법원 유죄 확정 - 장애인 피해자 진술, 신빙성 인정(02. 1. 12 1면 2011호)	/9
·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, 효력정지 - 현재, 균형법시행령 "평등권 침해"(02. 4. 27 2면 2081호)	/155

### ▷피의자 · 피고인의 권리

·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- 원주지원,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(02. 2. 16 1면 2033호)	/53
· 경찰의 '알몸수색', 인권위 진정돼 - 여성노조원 '생리 중' 호소, 경찰 묵살(02. 4. 12 1면 2070호)	/131
· 경찰청, '자해위험'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- 책임자 처벌요구에 사기 저하 운운(02. 4. 20 2면 2076호)	/145
· 경찰, 피의자 폭언 · 상해 - 권한 남용 논란...오산파출소, '정당한 공무집행'(02. 6. 21 1면 2118호)	/231

### ▷변호인 접견권

·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, 효력정지 - 현재, 균형법시행령 "평등권 침해"(02. 4. 27 2면 2081호)	/155
--	------

## 프라이버시

- <이계수의 인권이야기> 경찰의 이른바 '체증활동'과 집회·시위의 자유(02. 1. 15 2면 2012호) /12
- CCTV 설치하는 사용자의 권리? - 노동부,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(02. 1. 16 1면 2013호) /13
- '자기정보' 비공개, 경찰관행 위법 - 행정법원,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 판결(02. 2. 7 1면 2029호) /45
-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- 불법적인 사진 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(02. 4. 2 1면 2065호) /119
- 지문·얼굴정보 DB화 예정 - 정통부 발표에 "프라이버시 침해" 우려(02. 4. 11 2면 2069호) /130

## ▷전자신분증(전자주민카드/ 전자건강카드 등)

- 국회,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- "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"(02. 1. 9 2008호 2면) /4

## ▷사찰/ 도청/ 감청

- 국정원, "사찰은 통상적 일" - 범민련 간부 집 앞 촬영, 경찰 비호 아래 도망(02. 1. 31 2면 2024호) /36
- 영장없이, 통신활동 추적가능 - 통신비밀보호법 등, '통신비밀 침해' 위헌소송(02. 5. 29 1면 2103호) /200

## ▷지문날인

- '자기정보' 비공개, 경찰관행 위법 - 행정법원,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 판결(02. 2. 7 1면 2029호) /45
-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 청구 - 자기정보 '정정'시 반환·폐기 포함돼야(02. 2. 21 2면 2036호) /60
- KBS '열린채널'은 닫히고 말았다 - <주민등록증을 찢어라> 편성 불가 결정(02. 5. 8 1면 2088호) /170
- 선관위, 지문날인거부자 투표권 길 터 -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(02. 5. 14 1면 2092호) /178
- <논평>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(02. 5. 18 1면 2096호) /186
- 지문날인 거부자, 참정권 보장 촉구 - '주민증 안쓰기' 운동 시작(02. 5. 29 2면 2103호) /201
- 지문날인거부자, 신원증명 거부당해 - 참정권 운동... "모집! 신원증명 희망자"(02. 6. 4 1면 2107호) /209
- <만화사랑방>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구?(02. 6. 8 2면 2110호) /216
- "6·13, 남의 잔치"...투표배제 계층 많아 - 지문날인 거부자 등 대책 전무(02. 6. 12 1면 2112호) /219
- 지문날인 거부자, 가로막힌 참정권 - 행자부, 신원증명 거부...책임회피(02. 6. 15 2면 2114호) /224

## 사상·양심의 자유

- "서약서 강요, 양심의 자유 침해" -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(02. 4. 12 2면 2070호) /132
- 종료되지 않은 발전과업 - 거대한 회사 권력,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(02. 4. 24 1면 2078호) /148

## ▷준법서약

-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-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(02. 4. 26 1면 2080호) /152
- <논평>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현재의 재판(02. 4. 27 1면 2081호) /154

## ▷국가보안법

- '국보법 폐지' 현수막은 안 돼? -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(02. 2. 1 1면 2025호) /37
- 침묵하지 말자, 한총련 이적규정 5년, 「한총련문제 범사회 대책위」 발족(02. 3. 20 3면 2054호) /97
- <책읽기> 『한총련 이야기』(02. 3. 21 1면 2055호) /98
- 말레이시아, 테러 핑계 기본권 침해 -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(02. 5. 15 2면 2093호) /181
- "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?" - 한총련, 검찰총장에 공개질의(02. 5. 16 1면 2094호) /182
- <육이은의 인권이야기> 교과서와 다른 현실...국보법을 폐지하라(02. 6. 4 2면 2107호) /210

## ▷▷관련 사건

- 인터넷 게시물, 국보법·집시법 위반 꼬투리 -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(02. 1. 12 2면 2011호) /10
- '범민련 방북단' 전원 유죄판결 -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, 아직도 그대로!(02. 2. 8 2면 2030호) /48
-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- 한총련 전 대의원, 5년째 수배생활(02. 3. 9 2면 2047호) /82
- 국보법 위반 전력자 - 대법원·용역업체,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(02. 5. 7 1면 2087호) /168
-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- 경찰, 최후진술·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(02. 5. 15 1면 2093호) /180
- <만화사랑방> 게시판에 올린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~야!(02. 5. 17 2면 2095호) /185

## ▷▷조작간첩 사건

- 민사시효 논리,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- 고문사실은 인정...재심청구 길 열려(02. 4. 2 1면 2063호) /115

## ▷보안관찰법

-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- 범민련 최진수 씨 사전영장(02. 4. 11 2면 2069호) /130

## ▷장기수·양심수

- <책읽기> 『비전향장기수-0.5평에 갇힌 한반도』(02. 5. 15 1면 2093호) /180

## ▷양심에 따른 병역거부

- <최정민의 인권이야기> 양심에 '따른' 병역거부에 얽힌 얘기(02. 1. 8 2면 2007호) /2
- 병역거부 후 사회봉사 한달째 - 거부자 오씨, 출두요구 구두통보 받아(02. 1. 19 2면 2016호) /20
- 병역거부권 '1천인 선언운동' 전개(02. 1. 24 1면 2019호) /25
- 법원, "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" - 병역법 위헌제정...병역거부권 새 국면(02. 1. 30 1면 2023호) /33
- <자료> 병역법 위헌 제청 결정문 요지(02. 1. 30 2면 2023호) /34
-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, 유엔 간다 - 민변,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(02. 2. 2 2면 2026호) /40
- 각계 1500여명,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- 기독교계,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(02. 2. 5 1면 2027호) /41
- 오태양 경찰 출두 ... 조사 후 귀가 - 연대회의, '병역거부자 불구속수사' 촉구(02. 2. 8 2면 2030호) /48
-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- 연대회의, "불구속 원칙 일반화" 촉구(02. 2. 9 2면 2031호) /50
- 종교·양심적 병역거부 기독교계 토론회 - 병역거부권 인정, 갈 길 멀다(02. 2. 19 1면 2034호) /55
- <정희진의 인권이야기> 하리수와 오태양(02. 2. 26 2면 2039호) /66
- 병역거부를 보는 차가운 시선 - 병역거부반대자들,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(02. 3. 28 2면 2060호) /110
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3) - '병역거부권' 인정돼야...외교부 직원 발언(02. 4. 4 1면 2065호)	/119
· <기고>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 - 이스라엘·스위스·러시아 등의 병역거부(02. 4. 5 3면 2066호)	/123
· <기고>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 - "구금된 병역거부자들,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인권위에 통보 가능"(02. 4. 10 3면 2068호)	/128
· <기고>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 - 한국 참가단 중형무진(02. 4. 12 3면 2070호)	/133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6) 이스라엘 규탄 결의·병역거부권 열띤 논쟁(02. 4. 17 2면 2073호)	/138
·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- 국가인권위·인권단체, 유엔에 자료제출 가능(02. 4. 24 2면 2078호)	/149
· 그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! -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(02. 5. 9 1면 2089호)	/172
· 연대회의에서 준비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(02. 5. 9 2면 2089호)	/173
· <책임기> 『양심적 병역거부』(02. 5. 22 1면 2098호)	/190
· 경찰, "소란 우려"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- 대학생들, 재판 끝날 때까지 구금(02. 6. 20 2면 2117호)	/230
· <만화사랑방> '불법집회'라고 강제로 노상구금을 했다고라?(02. 6. 20 2면 2117호)	/230

## 표현의 자유

· '국보법 폐지' 현수막은 안 돼? -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(02. 2. 1 1면 2025호)	/37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7) 유엔보고서, 강정구 교수·단병호 위원장 사례(02. 4. 19 2면 2075호)	/143
· "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"-이주노동자에게 표현의 자유도 없다(02. 4. 20 1면 2076호)	/144
· KBS '열린채널'은 닫히고 말았다 - <주민등록증을 찢어라> 편성 불가 결정(02. 5. 8 1면 2088호)	/170
· <만화사랑방> 「열린 채널」, 각종 규제와 순화조건들이 도사리고 있나?(02. 5. 10 1면 2090호)	/174
· 등급분류 보류제도, 온존 - 비디오물·게임물 적용 여진, 또 위헌 논란(02. 6. 13 2면 2113호)	/222
·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- "규제나, 완화나" 논란, 검열 문제 실종(02. 6. 18 1면 2115호)	/225

## ▷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

· 동성애, 청소년에 해롭다? - '엑스존', 유해표시 불복... 사이트 파업 중(02. 1. 9 1면 2008호)	/3
· '엑스존'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- 인터넷등급제,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(02. 1. 10 1면 2009호)	/5
· <만화사랑방>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 매체?(02. 1. 11 1면 2010호)	/7
· 인터넷 게시물, 국보법·집시법 위반 꼬투리 -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(02. 1. 12 2면 2011호)	/10
· 경찰,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- 서버 압수수색 검토, 표현의 자유 제약(02. 3. 6 1면 2044호)	/75
·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대위 발족 - 정통윤 감시활동,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(02. 3. 14 1면 2050호)	/87
·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- 경찰, 최후진술·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(02. 5. 15 1면 2093호)	/180
· 정통윤, '군대반대' 홈페이지 함구령 - 2개월 이용정지... "자의적 해석"(02. 6. 1 1면 2106호)	/207
· '군대반대' 홈페이지 결국 폐쇄(02. 6. 4 1면 2107호)	/209
· '불온통신' 조항 위헌 결정 - 현재, '표현의 자유 침해' 인정(02. 6. 28 1면 2123호)	/242

## 집회·결사의 자유

· <이계수의 인권이야기> 경찰의 이른바 '체증활동'과 집회·시위의 자유(02. 1. 15 2면 2012호)	/12
· 경찰, "시위에 '상여' 무조건 안 돼" - 집회장 난입 ... 방패로 쪼고, 상여 부쉬(02. 1. 23 2면 2018호)	/24
· 월드컵 핑계 집회탄압 현실로 -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11명 연행(02. 2. 23 1면 2038호)	/63
·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- 즉결심판소, "불안감 조성·업무방해"(02. 3. 9 2면 2047호)	/82
· <이계수의 인권이야기> 집회·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(02. 3. 12 2면 2048호)	/84
·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-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의 자유제한 제동(02. 3. 19 1면 2053호)	/93
·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- 불법적인 사진 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(02. 4. 2 1면 2065호)	/119
· <만화사랑방> 경찰의 1인 시위 방해(02. 4. 5 1면 2066호)	/121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7) 유엔보고서, 강정구 교수·단병호 위원장 사례(02. 4. 19 2면 2075호)	/143
· "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"-이주노동자에게 표현의 자유도 없다(02. 4. 20 1면 2076호)	/144
· "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?" - '강제추방' 위협,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(02. 4. 23 1면 2077호)	/146
· 장애·피부색 뛰어넘어, '우린 하나' - 발전회사, "집회 가면 불이익" 협박(02. 5. 2 1면 2084호)	/161
· 어린이는 5월에만 보호·육성되나? - 정부, 시위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(02. 5. 3 1면 2085호)	/164
· <만화사랑방> 어떤 부모가 아이를 방패막이로? -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!(02. 5. 3 1면 2085호)	/164
· 테러 병자, 집회에 고무탄 사용 - 법적 근거 애매, '테러상황' 경계도 모호(02. 5. 10 1면 2090호)	/174
·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(02. 5. 11 2면 2091호)	/177
·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? - 교사대회...교육부, 단호한 조치 운운(02. 5. 24 2면 2100호)	/195
· 월드컵시설 주변, 노조집회 67곳 불허 - 특별치안구역 악용...1인시위도 막아(02. 6. 6 1면 2109호)	/213

## ▷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
· 집시법 개정안, 국회상정 예정 - 경총 개악청원, 정부 제한방침(02. 4. 13 2면 2071호)	/135
---	------

## ▷한총련

·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- 한총련 전 대의원, 5년 제 수배생활(02. 3. 9 2면 2047호)	/82
· 침묵하지 말자, 한총련 이적규정 5년, 「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」 발족(02. 3. 20 3면 2054호)	/97
· <책임기> 『한총련 이야기』(02. 3. 21 1면 2055호)	/98
· "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?" - 한총련, 검찰총장에 공개질의(02. 5. 16 1면 2094호)	/182

## 참정권

· 선관위, 지문날인거부자 투표권 길 터 -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(02. 5. 14 1면 2092호)	/178
· <논평>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(02. 5. 18 1면 2096호)	/186
· 지문날인 거부자, 참정권 보장 촉구 - '주민증 안쓰기' 운동 시작(02. 5. 29 2면 2103호)	/201
· 지문날인거부자, 신원증명 거부당해 - 참정권 운동... "모집! 신원증명 희망자"(02. 6. 4 1면 2107호)	/209
· <만화사랑방>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구?(02. 6. 8 2면 2110호)	/216

- “6·13, 남의 잔치”...투표배제 계층 많아 - 지문날인 거부자 등 대책 전무(02. 6. 12 1면 2112호) /219
-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- 행자부, 신원증명 거부...책임회피(02. 6. 15 2면 2114호) /224

## 소수자

### 이주노동자

- 외국인노동자, 임금체불 항의파업 - 회사, “신고해 추방시키겠다.” 으름장(02. 1. 24 1면 2019호) /25
- 아모르가구 이주노동자 파업승리 - 사업주, 밀린 임금 전액 지급키로 약속(02. 1. 25 2면 2020호) /28
- “공장이 늘이터이자 집” - 정부,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 적용 안 해(02. 4. 4 2면 2065호) /120
- 산업연수생, 파업으로 ‘휴가’ 쟁취 - ‘가족 사망 때도 고국 안 보내 줘’(02. 4. 11 1면 2069호) /129
- 장애·이주·비정규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- 노동권·생활권 10대 요구(02. 4. 18 2면 2074호) /141
- “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”-이주노동자에게 표현의 자유도 없다(02. 4. 20 1면 2076호) /144
- “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?” - ‘강제추방’ 위협,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(02. 4. 23 1면 2077호) /146
- 장애·피부색 뛰어넘어, ‘우린 하나’ - 발전회사, “집회 가면 불이익” 협박(02. 5. 2 1면 2084호) /161
- 이주노동자, 노동비자 발급해야 - 정부의 ‘1년 출국준비기간’은 미봉책(02. 5. 4 1면 2086호) /166
-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-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12일째(02. 5. 10 2면 2090호) /175
- <논평>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(02. 5. 11 1면 2091호) /176
- “집회 동참하고 싶어요” - ‘불법체류’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(02. 5. 17 2면 2095호) /185
- “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” -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(02. 5. 21 1면 2097호) /188
- 유럽 극우파 확산, 이민정책 보수화 - 아침마다 프 경찰, 난민희망자 추격전(02. 5. 31 2면 2105호) /205

### 난민

- 정부 난민정책, 인권보호 뒷전 - ‘박해’ 입증 책임 엄격, 생활 지원 없어(02. 6. 20 2면 2117호) /230

### 제한학교

- 국내 학교에 영주자격 부여-미흡한 지위향상, 영주‘권’ 확대 요구(02. 3. 16 1면 2052호) /91

### 재외동포

- 정부,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-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(02. 3. 30 1면 2062호) /113

### 여성

- <최정민의 인권이야기> 하리수와 오태양(02. 2. 26 2면 2039호) /66

- 94돌 ‘세계여성의 날’ 여성계 요구 - 성매매된 여성인권, 보육 공공성, 가족 평등(02. 3. 8 2면 2046호) /80
-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의 죽음 - 유언처럼 남겨진 ‘생활보장 수급권 운동’(02. 3. 28 1면 2060호) /109
- <이창조의 인권이야기> 파업이 가르쳐 주는 것(02. 5. 28 2면 2102호) /199
-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묵과 않겠다 - 종교·여성계,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(02. 6. 12 2면 2112호) /220
- <책임기> 『위안부』가 아니라 ‘성노예’이다(02. 6. 26 1면 2121호) /237

### ▷성폭력·성희롱/가정폭력

- 정신지체인 성폭력, 대법원 유죄 확정 - 장애인 피해자 진술, 신빙성 인정(02. 1. 12 1면 2011호) /9
- 제주카지노, 성희롱 집단진정 - 엉덩이·아랫배 치기, 성적 수치심 유발 언사(02. 1. 19 1면 2016호) /19
- <최정민의 인권이야기> ‘권리와 도리’ 사이에서(02. 1. 22 2면 2017호) /22
- <최정민의 인권이야기> 강철구씨의 착각(02. 3. 5 2면 2043호) /74
- <최정민의 인권이야기> 가해자의 인권?(02. 3. 26 2면 2058호) /105
- 학교현장, 성폭력에 속수무책 - 피해 여교사에 오히려 ‘폼위손상’ 경고조치(02. 5. 23 2면 2099호) /193
- <클릭 인권정보자료> ‘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’ 자료 모음(02. 6. 5 1면 2108호) /211
- “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?” -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(02. 6. 6 2면 2109호) /214
- <클릭 인권>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매뉴얼 ‘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’(02. 6. 19 1면 2116호) /227

### ▷성매매

- <최정민의 인권이야기> 아... 대한민국!(02. 2. 5 2면 2027호) /42
- “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소서” - 감금매춘·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(02. 2. 9 1면 2031호) /49
- 94돌 ‘여성의 날’ 여성계 요구 - 성매매된 여성인권, 보육 공공성, 가족 평등(02. 3. 8 2면 2046호) /80
- <클릭 인권정보자료> ‘성매매와 인권’ 자료 모음(02. 5. 29 1면 2103호) /200

### ▷여성노동권

- 도시철도 청소용역노동자 분사반대 파업 - 여성의날, 청소여성노동자들 인간선언(02. 3. 8 2046호 1면) /79

### 어린이·청소년

- 장애아동가구 지원 월5만원 - 가정환경 상실 방지, 앞뒤 안맞는 장애아 지원책(02. 1. 31 2면 2024호) /36
- 아동권 어디까지 왔나? -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(02. 2. 7 2면 2029호) /46
-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- 강서구청,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(02. 2. 9 2면 2031호) /50
-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- 원주지원,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(02. 2. 16 1면 2033호) /53
- 결식아동, 정부지원 확대해야 -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 개념 도입도 시급(02. 2. 28 1면 2041호) /70
-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- 형식적인 법조항, 구체적인 사업 미흡(02. 3. 14 2면 2050호) /88
- 입양인가? 아동매매인가? - 정부의 입양 촉진책, 총체적 부실(02. 3. 28 2면 2060호) /110
- “공장이 늘이터이자 집” - 정부,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 적용 안 해(02. 4. 4 2면 2065호) /120

· <육이은의 인권이야기>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(02. 4. 9 2면 2067호)	/125
· 편견·궁핍에 지치는 '한부모 가정' - 다양성 교육·양육비보조 현실화 절실(02. 4. 11 2면 2069호)	/130
· 그들 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-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 7백여명(02. 4. 25 2면 2079호)	/151
· 어린이는 5월에만 보호·육성되나? - 정부, 시위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(02. 5. 3 1면 2085호)	/164
· <만화사랑방>어떤 부모가 아이를 방패막이로? -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!(02. 5. 3 1면 2085호)	/164
· <논평> '어린이 보호 종합대책'을 비판한다(02. 5. 4 1면 2086호)	/166
· 소년소녀가정, 1만3천명 넘어 - 가정도우미 제도 등 정서적 지원 절실(02. 5. 16 2면 2094호)	/183
·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- 아동권 조약 2차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(02. 6. 19 2면 2116호)	/228
· 교육부, '종합검진 전환계획' 찬반 논란 - '사실병원에 예산 퍼주기' 비판 등(02. 6. 21 2면 2118호)	/232
·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 규정 -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(02. 6. 29 2면 2124호)	/245

### ▷아동학대/체벌

· "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 돼요" -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(02. 1. 24 2면 2019호)	/26
· 위험수위 넘어서 어린이 학대 - 정부,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"나 몰라라"(02. 4. 18 2면 2074호)	/141
· <육이은의 인권이야기> 체벌? "몸으로 때우지, 뭐!"(02. 5. 7 2면 2087호)	/169
·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- 사회권위원회, 영국 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(02. 5. 8 2면 2088호)	/171
· 학생연합, 스승의 날 쓴소리 -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(02. 5. 16 2면 2094호)	/183

### ▷청소년 노동

·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-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(02. 3. 7 2면 2045호)	/78
· 고사리 손 착취하는 축구공 - 노동착취·아동노동 ... 초국적스포츠기업 고발(02. 5. 25 1면 2101호)	/196

### ▷보육·교육

· <필리핀 인권기행>① 무너진 공교육, 방치된 아이들(02. 2. 22 2면 2037호)	/62
· 94돌 '여성의 날' 여성계 요구 - 성매매된 여성 인권, 보육 공공성, 가족 평등(02. 3. 8 2면 2046호)	/80
·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? -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(02. 3. 21 2면 2055호)	/99
· 유아보육,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-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(02. 5. 10 2면 2090호)	/175

### 장애인

· 정신지체인 성폭력, 대법원 유죄 확정 - 장애인 피해자 진술, 신빙성 인정(02. 1. 12 1면 2011호)	/9
· 장애아동가구 지원 월 5만원 - 가정환경 상실방지, 앞뒤 안맞는 장애아 지원책(02. 1. 31 2면 2024호)	/36
· <책읽기> 『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우 정보집』(02. 2. 6 1면 2028호)	/43
· 장애아 통합캠프 참여, 쉼 징계 사유? - 장애아 교육권 확보 운동 불씨 만든다(02. 2. 7 1면 2029호)	/45
·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의 죽음 - 유언처럼 남겨진 '생활보장 수급권 운동'(02. 3. 28 1면 2060호)	/109
· 경찰, 최옥란 장애운동가의 마지막 길도 막다(02. 3. 29 1면 2061호)	/111
· <올림-인권영화> 노란들판(02. 4. 5 2면 2066호)	/122
· <만화사랑방> 진짜 장애인의 날은 어느 것일까요?(02. 4. 19 1면 2075호)	/142

· 현행 최저생계비, 위헌소송 - 장애인 가구 추가 지출 외면...행복추구권 침해(02. 5. 14 1면 2092호)	/178
---	------

### ▷고용

· 장애인차별, 인권위 조치 속빈 강정 - 원상회복·사과권고 없어(02. 4. 16 1면 2072호)	/136
· 장애인단체, "차별 인정 넘어, 실질적 구제조치" 촉구 -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(02. 4. 17 1면 2073호)	/138
· "꽃구경 대신 일자리를" - 장애인투쟁 주간 사흘째, 기만적 고용정책 규탄(02. 4. 18 1면 2074호)	/140
· 장애·이주·비정규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- 노동권·생활권 10대 요구(02. 4. 18 2면 2074호)	/141
· 장애·피부색 뛰어넘어, '우린 하나' - 발전회사, "집회 가면 불이익" 협박(02. 5. 2 1면 2084호)	/161

### ▷이동권
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장애대학생들이 느끼는 차별 측정(02. 1. 10 1면 2009호)	/5
·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- 추락참사 1년,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(02. 1. 23 1면 2018호)	/23
· <만화사랑방> "장애인도 버스 타고 싶다"(02. 1. 25 1면 2020호)	/27
· "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" - 또 장애인 추락사망, 박경석 교장 경찰서 연행(02. 5. 23 1면 2099호)	/192

### 동성애자

· 동성애, 청소년에 해롭다? - '엑스존', 유해표시 불복... 사이트 파업 중(02. 1. 9 1면 2008호)	/3
· '엑스존'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- 인터넷등급제,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(02. 1. 10 1면 2009호)	/5
· <만화사랑방>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 매체?(02. 1. 11 1면 2010호)	/7

### 성전환자

· <정희진의 인권이야기> 하리수와 오태양(02. 2. 26 2면 2039호)	/66
· 성전환자 호적변경, 입법논의 - 김홍신 의원실, 7월 발의 계획...의견수렴 절실(02. 6. 5 2면 2108호)	/212

### 국제

#### 유엔인권기구

##### ▷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

· 유엔 인권위, 테러방지법 직격탄 - 각국 테러방지법, 인권침해 양산(02. 3. 23 1면 2057호)	/102
· (1) 유엔인권위 개막 -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...기본권 제한, 반아랍주의(02. 3. 23 2면 2057호)	/103
· (2) 유엔인권위, 급작스런 일정 축소 - 민간단체의 참여권, 심각한 타격 예상(02. 3. 27 3면 2059호)	/108
· (2) 팔-이 대결, 인민자결권·인종주의 논의 압도(02. 3. 27 3면 2059호)	/108

· (3) '병역거부권' 인정돼야...외교부 직원 발언(02. 4. 4 1면 2065호)	/119
· (3) 유엔인권위 파행...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(02. 4. 4 2면 2065호)	/120
· (4) 미-이,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(02. 4. 5 2면 2066호)	/122
· <기고>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 - 이스라엘·스위스·러시아 등의 병역거부(02. 4. 5 3면 2066호)	/123
· (5)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-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(02. 4. 10 2면 2068호)	/127
· <기고>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 - "구금된 병역거부자들, 유엔에 통보 가능"(02. 4. 10 3면 2068호)	/128
· <기고>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 -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종횡무진(02. 4. 12 3면 2070호)	/133
· (6) 한국 테러방지법안, 인권위 발언대에 - 이스라엘 규탄 결의·병역거부권(02. 4. 17 2면 2073호)	/138
· (7) 유엔보고서, 강정구 교수·단병호 위원장 사례 -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(02. 4. 19 2면 2075호)	/143
· (8)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, 한국 반대 - 막바지, 결의안 투표(02. 4. 24 2면 2078호)	/149
· (8) 유엔 사회권 포럼 올해부터 개최 - '반세계화 투쟁', 장내투쟁 교두보 기대(02. 4. 24 2면 2078호)	/149
·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- 국가인권위·인권단체, 유엔에 자료제출 가능(02. 4. 24 2면 2078호)	/149
· (9) 제58차 유엔인권위, 파행 끝 막 내려 - 이스라엘,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(02. 5. 2 1면 2084호)	/161
· (9) 멕시코, 대테러조치 인권침해 방지 결의안 철회 - 불투명한 회의진행에 회의(02. 5. 2 2면 2084호)	/162
· (10)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들 - 파행운영에도 불구하고, 일부 결실도(02. 5. 3 2면 2085호)	/165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 관련 소식 모음(02. 5 8 1면 2088호)	/170

## 국제형사법원(재판소)

· <이계수의 인권이야기> 테러방지법은 가고 '평화의 국제연대'여 오라(02. 2. 19 2면 2034호)	/56
· 정의실현 지렛대, 국제형사재판소 -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, 설립 박차(02. 4. 13 1면 2071호)	/134
· <논평>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(02. 4. 19 2면 2075호)	/144
· 아시아인권운동가, 한국정부에 ICC 가입 촉구 - 외교부 "올해 안 가입하겠다"(02. 5. 15 2면 2093호)	/181

## 지역인권상황

### ▷아시아

· <필리핀 인권기행>① 무너진 공교육, 방치된 아이들(02. 2. 22 2면 2037호)	/62
· <필리핀 인권기행>② 전쟁터, 거리의 아이들 찾아 나선 민간단체 인권교육(02. 2. 23 2면 2038호)	/64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2) 팔-이 대결, 인민자결권·인종주의 논의 압도(02. 3. 27 3면 2059호)	/108
· "이스라엘은 팔 공격 중단하라" - 이 대사관 근처 집회, 입다문 우리 정부(02. 4. 5 1면 2066호)	/121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4) 미-이,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(02. 4. 5 2면 2066호)	/122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5)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(02. 4. 10 2면 2068호)	/127
· <만화사랑방> 중동판 <홍부와 놀부>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(02. 4. 12 1면 2070호)	/131
· 이스라엘에 말한다 '학살 중단·군대철수' - "정부, 팔 지역 인도적 지원해야"(02. 4. 12 2면 2070호)	/132
· <논평> 이스라엘은 피문은 손을 거둬라(02. 4. 13 1면 2071호)	/134
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6) 한국 테러방지법안, 인권위 - 이 규탄 결의(02. 4. 17 2면 2073호)	/138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9) 인권위, 막 내려 - 이,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(02. 5. 2 1면 2084호)	/161
· 말레이시아, 테러 핑계 기본권 침해 -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(02. 5. 15 2면 2093호)	/181
· 태국의 광주항쟁 '검은오월' 10주기 - 진상보고서 미공개, 학살자 불처벌 여전(02. 5. 22 2면 2098호)	/191

### ▷미국

· 미국, 9·11 이후 ...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- 인권침해 계속(02. 3. 16 2면 2052호)	/92
---	-----

### ▷유럽

· 유럽 극우파 확산, 이민정책 보수화 - 아침마다 프 경찰, 난민희망자 추격전(02. 5. 31 2면 2105호)	/205
--	------

### ▷아프리카

· 아프리카 인권위,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- 나이지리아 정부·석유회사 '셸' 공조, 건강권·환경권·생존권 등 침해(02. 6. 22 2면 2119호)	/234
--	------

## 특별주제

### 국가기구와 인권

#### ▷국가인권위원회

· 국가인권위,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- 알 권리 침해 ... 참여의 폭 더 넓혀야(02. 3. 5 1면 2043호)	/73
· <논평>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(02. 3. 9 1면 2047호)	/81
· 포괄적 비공개 규정, 공개원칙 무색 - 인권위,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(02. 3. 16 2면 2052호)	/92
· <이창조의 인권이야기> 누가 국가인권위를 혼드는가?(02. 4. 2 2면 2063호)	/116
· "국가인권위, 너무 소극적이다" - 법 제정 1주기 토론회, 인권단체 비판 봇물(02. 5. 1 2면 2083호)	/160
· 인권단체, 인권위에 공개질의 - 설립과정·운영의 민주성, 진정처리 기준과 원칙(02. 5. 23 1면 2099호)	/192
· <성명>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- 인권단체 공개 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(02. 6. 20 1면 2117호)	/229

#### ▷▷진정 관련

· 재소자 사망사건, 인권위 진정(02. 1. 18 2면 2015호)	/18
·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사망 - 국가인권위 늑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(02. 3. 27 1면 2059호)	/106

· 장애인 차별, 인권위 조치 속빈 강정 - 원상회복·사과 권고 없어(02. 4. 16 1면 2072호)	/136
· <이우갑의 인권이야기>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(02. 4. 16 2면 2072호)	/136
· 장애인단체, “차별 인정 넘어, 실질적 구제조치” 촉구 -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(02. 4. 17 1면 2073호)	/138
· 국가인권위,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(02. 4. 25 1면 2079호)	/150
· 대우조선 사태, 국가인권위 진정 - “사쪽, 노조원·비노조원 차별했다”(02. 4. 27 2면 2081호)	/155
· “대입연소자 순 합격처리, 차별” - 국가인권위, 탈락자에 대한 합격처리 권고(02. 6. 19 1면 2116호)	/227

### ▷▷기타

· <논평>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한다(02. 2. 2 1면 2026호)	/39
· 국가인권위 경고, ‘테러방지법 퇴장!’ - 국회의장에 법안 반대 뜻 전달(02. 4. 5 1면 2066호)	/121
· 정부 월드컵 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- 국가인권위, ‘인권현장 확인반’ 운영(02. 5. 28 1면 2102호)	/198
· 공소시효 문제, 인권위 나선다 - 인권위원장, 청문회 약속…소급입법에 신중(02. 6. 12 1면 2112호)	/219

### 시설수용자와 인권

· <논평>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한다(02. 2. 2 1면 2026호)	/39
---	-----

### ▷에바다 사건(청각장애아 시설)

· 에바다 정상화 길목, 막힌 철문 - 옛 비리재단 측, 마지막 몸부림(02. 1. 11 1면 2010호)	/7
· 에바다 진입 좌절, 정상화 차질(02. 1. 15 1면 2012호)	/11
·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- 옛 비리재단 쪽,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(02. 3. 6 2면 2044호)	/76
·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- 경찰청·평택경찰서 앞 집회(02. 3. 7 2면 2045호)	/78
· 에바다 폭력 사태, 한계점 - 해아래집 침탈…경찰 소극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(02. 3. 19 1면 2053호)	/93
· <류은숙의 인권이야기> 아, 에바다(02. 3. 19 2면 2053호)	/94
· <만화사랑방> 에바다 폭력사태를 방조하는 이들(02. 3. 22 1면 2056호)	/100
· ‘에바다, 시설비리 척결 희망되자’ - 투쟁 2000일,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(02. 5. 18 1면 2096호)	/186

### ▷양지마을 사건

· ‘양지마을’ 사건, 국가배상 판결 - 불법납치·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(02. 5. 30 1면 2104호)	/202
--	------

### 감옥·유치장 수용자와 인권

· <기고> 주간 ‘평화와 인권’ 서미숙 기자 - 전주교도소, 재소자 서신·집필 불허(02. 1. 30 1면 2023호)	/33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·2』(02. 2. 20 1면 2035호)	/57
· 인권의 사각지대 대응감방 폐쇄 시급(02. 3. 23 2면 2057호)	/103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8)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, 한국 반대(02. 4. 24 2면 2078호)	/149

· 부산교도소 수용자, 징벌 중 사망 - “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” 논란(02. 6. 18 1면 2115호)	/225
---	------

### ▷의료문제

· 구치소 수감자 또 사망(02. 1. 9 2008호 1면)	/3
· 서울구치소 사망자 1차 부검결과 발표 - 구치소측 의료조치 적절 여부 초점(02. 1. 10 2면 2009호)	/5
· 서울 구치소, 중환자 여러 시간 방치… 죽음으로 - 구치소 내 의료 문제 노출(02. 1. 11 2면 2010호)	/8
·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-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(02. 1. 17 2면 2014호)	/16
· 재소자 사망사건, 인권위 진정(02. 1. 18 2면 2015호)	/18
· “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” - 오늘,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(02. 1. 24 2면 2019호)	/25
· 법무부 “수용자 사망, 잘못없다” - 호흡기 언제 뿜지 정하면, 치료비 고려(02. 1. 26 1면 2021호)	/29
· 병원비 독촉에 전셋집 내놔 - 뇌사상태의 수원구치소 재소자(02. 2. 2 2면 2026호)	/40
· “교도소가 병원이나?” -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불멘 소리(02. 2. 9 2면 2031호)	/50
·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범조인 선언(02. 2. 28 1면 2041호)	/69
·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사망 - 국가인권위 늑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(02. 3. 27 1면 2059호)	/106
· 수용자 또 사망,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 - 교도소 자궁암 2기 진단 후 방치(02. 4. 2 1면 2063호)	/115
· 뇌종양 안고 1년 이상 복역 - 교도소, ‘스트레스’ 진단…의료시스템 정비 절실(02. 4. 9 1면 2067호)	/124
· 국가인권위,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(02. 4. 25 1면 2079호)	/150
· “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” - 민관, 수용자 의료권 논의(02. 4. 25 2면 2080호)	/153

### 신자유주의와 인권

·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 - 세계사회포럼, 브라질… 민주노동 참가(02. 1. 26 2면 2021호)	/30
· <기고> 1.31~2.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- 민중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(02. 2. 16 2면 2033호)	/54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(8) 유엔사회권포럼 올해부터 개최 - ‘반세계화 투쟁’, 장내투쟁 교두보 기대(02. 4. 24 2면 2078호)	/149
· 고사리 손 착취하는 축구공 - 노동착취·아동노동… 초국적 스포츠기업 고발(02. 5. 25 1면 2101호)	/196

### ▷민영화

· 철도·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- “민영화하면 요금 인상, 사고 빈발”(02. 2. 26 1면 2039호)	/65
· 민영화 반대, 전국적 연대파업 - 13만 노동자,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(02. 2. 27 1면 2040호)	/67
· “해의매각, 전력공급 불안 낳는다” - 발전노조 3일째 파업 지속, 철도는 타결(02. 2. 28 1면 2041호)	/69
·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?(02. 2. 28 1면 2041호)	/69
· “민영화방침 유보, 공론화가 우선” - 발전소 매각 문제 지적 긴급 토론회 열려(02. 3. 6 2면 2044호)	/76
· 발전소 매각반대, 9백88인 시국선언 - “민영화 강행 철회, 국민적 공론화 촉구”(02. 3. 8 1면 2046호)	/79
·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(02. 3. 26 1면 2058호)	/104
· “합의안 수용 여부, 총투표 통해 결정” - 발전조합원 노정합의에 실망감 드러내(02. 4. 3 1면 2064호)	/117



## 미국과 인권

- <논평> 악의 축? 부시방한을 거부하라!(02. 2. 9 1면 2031호) /49
- <만화사랑방> 부시, 냉전사고 입국 금지 검색대 통과하자 '삐삐' 경보음(02. 2. 15 1면 2032호) /51
- 부시방한 반대, 각계각층 총집결 - 경찰 집회장 난입, 참가자 여럿 부상(02. 2. 21 1면 2036호) /59
- 미국, 9·11 이후 ...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- 인권침해 계속(02. 3. 16 2면 2052호) /92

## ▷주한미군범죄

-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, 장례 치러 - "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"(02. 6. 11 1면 2111호) /217
- 주한미군, 주민의 생명은 관심 밖 -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, 안전대책 시급(02. 6. 15 1면 2114호) /223
- <논평>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... 여중생 사망사건(02. 6. 15 1면 2114호) /223
- 미군, 사과하랬더니 물대표 싸 -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, 1차 범국민대회 열려(02. 6. 27 1면 2122호) /239
-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, 미군측 고소(02. 6. 28 1면 2123호) /242

## 과거청산/불처벌

- "민주화운동 왜곡 말라" - 계승연대, '동의대 사건' 진상규명 요구(02. 5. 9 2면 2089호) /173
- '사북항쟁' 재평가 서둘러야 - '군부로부터 심한 고문', 피해자들 입열어(02. 6. 5 1면 2108호) /211
- <논평> 불평등한 과거청산 ... '사북항쟁'(02. 6. 8 1면 2110호) /215

## ▷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

- "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" -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(02. 3. 14 1면 2050호) /87
- 정부,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-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(02. 3. 30 1면 2062호) /113
- '일제피해자', 한일협정 알 권리 요구 - 대일청구권 확인, 외교문서 공개 필요(02. 6. 22 1면 2119호) /233
- <책임기> 『'위안부'가 아니라 '성노예'이다』(02. 6. 26 1면 2121호) /237

## ▷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

- "민간인 학살 문제, 방치하지 마라" - 한국전전후 민간인학살, 특별법 제정 촉구(02. 2. 3 1면 2027호) /41
- <기획>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 동원, 전쟁시기 민간인학살(02. 3. 20 2면 2054호) /96
-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』(02. 4. 11 1면 2069호) /129
- 7월 4일 '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' 열려 - 민간인 학살 여론확산 시도(02. 6. 25 1면 2120호) /235

## ▷의문사

- "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" - 의문사규명위 발표, 안기부 개입 의혹(02. 1. 11 2면 2010호) /8
- 의문사규명위원장 사퇴서 제출(02. 1. 15 1면 2012호) /11
- 의문사유가족, 특별법 개정안 마련 - 의문사규명위 조사권한 강화, 기간 연장(02. 1. 29 1면 2022호) /31

- 의원 69명, '의문사법' 개정안 발의 - 의문사 진상규명, 돌파구 열리려나?(02. 2. 15 2면 2032호) /52
- '의문사법' 개정 작업 난항 - 유가족 "대폭양보냐, 전면철폐냐" 갈림길(02. 2. 26 1면 2039호) /65
- '의문사법' 국회 법사위 상정 - 유가족,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(02. 2. 28 2면 2041호) /70
-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-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(02. 3. 1 1면 2042호) /71
- <논평>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(02. 3. 16 1면 2052호) /91
- <기획>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-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(02. 3. 27 2면 2059호) /107
- <기획>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-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(02. 3. 29 2면 2061호) /112
- 의문사 이윤성씨 프락치공작 증거발견 - 친구 최씨, "사망 한 달 전 만났다"(02. 4.30 1면 2082호) /156
- 의문사 토론, 관계기관 전원 불참 - '월드컵 때문에', '우린 협조 잘한다' 핑계(02. 5. 24 1면 2100호) /194
- 최종길 의문사, 타살 확정 - 의문사위, "소극적 저항도 민주화운동"(02. 5. 28 1면 2102호) /198
- 시효배제입법 여론 확산...최종길 유족, 국가배상청구(02. 5. 30 1면 2104호) /202
-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- 의문사위, 고 한희철 '의문사' 인정(02. 6. 27 1면 2122호) /239

## ▷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

- <논평> '게이트'가 가르쳐주는 인권(02. 1. 12 1면 2011호) /9
- 수지김 가족의 한 맺힌 호소 - "공소시효 없애는 운동 벌여야 합니다"(02. 1. 18 1면 2015호) /17
- 인권단체들, 장세동 고발한다 - '수지김' 사건 계기로 공소시효 문제 제기(02. 1. 25 1면 2020호) /27
- <논평>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(02. 1. 26 1면 2021호) /29
- 인권단체들, 장세동 고발-"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"(02. 1. 31 1면 2024호) /35
- '반인도적 국가범죄' 처벌 가능한가? - "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"(02. 2. 6 2면 2028호) /44
-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-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(02. 3. 9 1면 2047호) /81
- <기획> 시효는 없다. 반인도적 국가범죄! ③ - 공소시효는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(02. 3. 20 2면 2054호) /96
- <기획> ④ -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(02. 3. 22 2면 2056호) /101
- <기획> ⑤ - 한국도 '중대한 국가범죄'엔 공소시효 배제했다(02. 3. 27 2면 2059호) /107
- <기획> ⑥ - '반인도적 범죄'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(02. 3. 29 2면 2061호) /112
-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』(02. 4. 3 1면 2064호) /117
- <기획> ⑦ - 공소시효 배제입법, 더 이상 미룰 수 없다(02. 4. 3 2면 2064호) /118
- (인터뷰)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인 이주영 의원(02. 4. 3 2면 2064호) /118
- '시효배제 특별법' 입법청원 - "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?"(02. 5. 21 1면 2097호) /188
- 국회,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-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(02. 5. 25 2면 2101호) /197
- <논평> 시효배제입법, 지체될 수 없다(02. 6. 1 1면 2106호) /207
- 공소시효 문제, 인권위 나선다 - 인권위원장, 청문회 약속...소급입법엔 신중(02. 6. 12 1면 2112호) /219

## ▷▷관련 사례

- <기획> 시효는 없다. 반인도적 국가범죄!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, 고 박영두 치사사건(02. 3. 13 2면 2049호) /86
- <논평>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(02. 3. 16 1면 2052호) /91

· <기획>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- 조작간첩사건(02. 3. 22 2면 2056호)	/101
· <기획>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- 5공 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(02. 3. 27 2면 2059호)	/107
· 시효배제입법 여론 확산...최종길 유족, 국가배상청구(02. 5. 30 1면 2104호)	/202

### ▷▷▷삼청교육대

·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바램 - 80년 군사재판 '다'급 판정, 8개월 삼청교육(02. 1. 16 1면 2013호)	/13
· <자료읽기> 「2001 삼청교육대백서(상)」(02. 1. 23 1면 2018호)	/23
· <기획> 시효는 없다. 반인도적 국가범죄! ② -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(02. 3. 15 2면 2051호)	/90
· 검찰,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- 피해자들,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(02. 4. 10 1면 2068호)	/126

### ▷▷▷수지김 사건

· 수지김 가족의 한 맺힌 호소 - "공소시효 없애는 운동 벌어야 합니다"(02. 1. 18 1면 2015호)	/17
· 인권단체들, 장세동 고발한다 - '수지김' 사건 계기로 공소시효 문제 제기(02. 1. 25 1면 2020호)	/27
· <논평>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(02. 1. 26 1면 2021호)	/29
· <특별기고>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- 말단 김모씨에 모든 책임 전가(02. 1. 26 1면 2021호)	/29~30
·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- 수지김 유족 등, 국정원 앞 집회(02. 4. 10 1면 2068호)	/126
· '장세동 범죄' 공소권 없음 결정(02. 6. 6. 1면 2109호)	/213

### 테러방지법

· "테러방지법 반대, 인권침해 위협" - 대한변협, 국회에 의견서 전달(02. 1. 25 2면 2020호)	/28
· <이계수의 인권이야기> 테러방지법은 가고 '평화의 국제연대'여 오라(02. 2. 19 2면 2034호)	/56
·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-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(02. 2. 21 1면 2036호)	/59
· <발췌> 테러방지법(안)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(02. 2. 21 2면 2036호)	/60
·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- 국회, 진지한 검토 없이 처리 우려(02. 2. 22 1면 2037호)	/61
· <만화사랑방> 한총련 미상의 점거농성에 미대사관 발끈 - 테러방지법 찬스닷!(02. 2. 22 1면 2037호)	/61
· <논평>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(02. 2. 23 1면 2038호)	/63
· 테러방지법안 심의, 3월 국회로 연기(02. 2. 27 1면 2040호)	/67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테러방지법 자료 모음』(02. 2. 27 1면 2040호)	/67
· "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령" -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(02. 3. 7 1면 2045호)	/77
·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-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(02. 3. 12 1면 2048호)	/83
· IMF 핑계, 테러방지법 억지 - 민주당, 궁색한 변명 ... "입법 불가피" 고집(02. 3. 20 1면 2054호)	/95
· 유엔 인권위, 테러방지법 직격탄 - 각국 테러방지법, 인권침해 양산(02. 3. 23 1면 2057호)	/102
· <논평> 테러방지법, 한시법도 안된다(02. 3. 23 1면 2057호)	/102
· <유엔인권위 소식> (1) 반테러안보논리 비판 초점...기본권 제한, 반아랍주의(02. 3. 23 2면 2057호)	/103
· 한나라당, "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" - 정보위 국회의원초차 법안에 대해 무지(02. 3. 29 1면 2061호)	/111
· 국가인권위 경고, '테러방지법 퇴장!' - 국회의장에게 법안 반대 뜻 전달(02. 4. 5 1면 2066호)	/121
· 민주당,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- "수정안 마련, 통과시키겠다"(02. 4. 9 1면 2067호)	/124

· 국회, 테러방지법 논의 연기 - 야당 인권위 반대의견 신중 검토(02. 4. 13 2면 2071호)	/134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6) 한국의 테러방지법안, 유엔 인권위 발언대에(02. 4. 17 2면 2073호)	/138
·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 농성 끝내(02. 4. 19 2면 2075호)	/143
· 앰네스티,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- 인권 침해 전력 국정원, 권한 확대 우려(02. 4. 26 2면 2080호)	/153
· <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> (9) 맥, 대테러조치의 인권침해 방지 결의안 철회(02. 5. 2 2면 2084호)	/162
· 말레이시아, 테러 핑계 기본권 침해 -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(02. 5. 15 2면 2093호)	/181
· 테러방지법, 아직 안심할 수 없다 -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·통제력 키워야(02. 5. 16 1면 2094호)	/182

### 인권교육

· <현장그리기> 2002 교사 인권교육 워크숍 - 강연없이 스스로 배운다(02. 1. 18 2면 2015호)	/18
· <필리핀 인권기행>② 전쟁터, 거리의 아이들 찾아 나선 민간단체 인권교육(02. 2. 23 2면 2038호)	/64
· 인권으로 그리는 세상 - 인권운동가 단 존스 그림 전시회 열려(02. 5. 22 2면 2098호)	/191

### 월드컵과 인권

· 월드컵 핑계 집회탄압 현실로 -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11명 연행(02. 2. 23 1면 2038호)	/63
· 정부,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-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(02. 3. 30 1면 2062호)	/113
· <권두섭의 인권이야기>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?(02. 5. 21 2면 2097호)	/189
· "월드컵 전, 장기분규 해결하라" - 금속 장기투쟁 노조들, 무기한 노숙투쟁(02. 5. 22 1면 2098호)	/190
· <만화사랑방> 월드컵 맞이 정책 대반성 발표회 - 이렇게는 왜 못하노?(02. 5. 24 1면 2100호)	/194
· 고사리 손 착취하는 축구공 - 노동착취·아동노동 ... 초국적 스포츠기업 고발(02. 5. 25 1면 2101호)	/196
· <논평> 월드컵의 광풍(02. 5. 25 1면 2101호)	/196
· 정부 월드컵 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- 국가인권위, '인권현장 확인반' 운영(02. 5. 28 1면 2102호)	/198
· 월드컵시설 주변, 노조집회 67곳 불허 - 특별치안구역 악용 ... 1인시위도 막아(02. 6. 6 1면 2109호)	/213
· <논평> '붉은 악마'를 부추기지 말라(02. 6. 22 1면 2119호)	/233
· 월드컵, 교과서 내용도 좌지우지 - '조국애·질서외' 부각...2학기 삽입계획(02. 6. 26 2면 2121호)	/238
· <논평> '붉은 악마'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(02. 6. 27 2~3면 2122호)	/240~241
· <만화사랑방> '월드컵 신화'가 교과서에 실릴 듯 - 사진은 이걸로...!(02. 6. 28 1면 2123호)	/242

### 평화

· <논평> 악의 축? 부시방한을 거부하라!(02. 2. 9 1면 2031호)	/49
· <만화사랑방> 부시, 냉전사고 입국 금지 검색대 통과하자 '삐삐'경보음(02. 2. 15 1면 2032호)	/51
· "무기강매·전쟁책동 중단하라" - 부시 방한 반대 시위 곳곳(02. 2. 19 1면 2034호)	/55
· <필리핀 인권기행>③ 가난과의 전쟁, 전쟁 속의 가난(02. 2. 27 2면 2040호)	/67

# 기획

## ▷필리핀 인권기행

- ① 무너진 공교육, 방치된 아이들(02. 2. 22 2면 2037호) /62
- ② 전쟁터, 거리의 아이들 찾아 나선 민간단체 인권교육(02. 2. 23 2면 2038호) /64
- ③ 가난과의 전쟁, 전쟁 속의 가난(02. 2. 27 2면 2040호) /68

## ▷시효는 없다. 반인도적 국가범죄!

-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, 고 박영두 치사사건(02. 3. 13 2면 2049호) /86
- ② 한국판 인종청소,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(02. 3. 15 2면 2051호) /90
- ③ 공소시효,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(02. 3. 20 2면 2054호) /96
-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(02. 3. 22 2면 2056호) /101
- ⑤ 한국도 '중대한 국가범죄'엔 공소시효 배제했다(02. 3. 27 2면 2059호) /107
- ⑥ '반인도적 범죄'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(02. 3. 29 2면 2061호) /112
- ⑦ 공소시효 배제입법, 더 이상 미룰 수 없다(02. 4. 3 2면 2064호) /118
- (인터뷰)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인 이주영 의원(02. 4. 3 2면 2064호) /118

## ▷한국의 국가범죄 유형

- ① 강점시기 강제 동원, 전쟁시기 민간인학살(02. 3. 20 2면 2054호) /96
- ② 조작간첩사건(02. 3. 22 2면 2056호) /101
-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(02. 3. 27 2면 2059호) /107
-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(02. 3. 29 2면 2061호) /112

# 인권하루소식 고정란 및 기타

## 논평

- '게이트'가 가르쳐주는 인권(02. 1. 12 1면 2011호) /9
-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라(02. 1. 19 1면 2016호) /19
-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(02. 1. 26 1면 2021호) /29
-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한다(02. 2. 2 1면 2026호) /39
- 약의 축? 부시방한을 거부하라!(02. 2. 9 1면 2031호) /49
- 비전 2011!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(02. 2. 16 1면 2033호) /53

-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(02. 2. 23 1면 2038호) /63
-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(02. 3. 9 1면 2047호) /81
-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(02. 3. 16 1면 2052호) /91
- 테러방지법, 한시법도 안된다(02. 3. 23 1면 2057호) /102
-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(02. 3. 30 1면 2062호) /113
-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(02. 4. 13 1면 2071호) /134
-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(02. 4. 19 2면 2075호) /144
-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(02. 4. 27 1면 2081호) /154
- '어린이 보호 종합대책'을 비판한다(02. 5. 4 1면 2086호) /166
-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(02. 5. 11 1면 2091호) /176
-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(02. 5. 18 1면 2096호) /186
- 월드컵의 광풍(02. 5. 25 1면 2101호) /196
- 시효배제입법, 지체될 수 없다(02. 6. 1 1면 2106호) /207
-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...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(02. 6. 15 1면 2114호) /223
- '붉은 악마'를 부추기지 말라(02. 6. 22 1면 2119호) /233
- '붉은 악마'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(02. 6. 27 2~3면 2122호) /240~241
- 노바티스, '죽음의 흥정'을 중단하라(02. 6. 28 1면 2124호) /244

## 인권이야기

### ▷최정민의 인권이야기

- 양심에 '따른' 병역거부에 얽힌 얘기(02. 1. 8 2면 2007호) /2
- 아... 대한민국!(02. 2. 5 2면 2027호) /42
- 강철구씨의 착각(02. 3. 5 2면 2043호) /74

### ▷이계수의 인권이야기

- 경찰의 이른바 '체증활동'과 집회·시위의 자유(02. 1. 15 2면 2012호) /12
- 테러방지법은 가고 '평화의 국제연대'여 오라(02. 2. 19 2면 2034호) /56
- 집회·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(02. 3. 12 2면 2048호) /84

### ▷정희진의 인권이야기

- '권리와 도리' 사이에서(02. 1. 22 2면 2017호) /22
- 하리수와 오태양(02. 2. 26 2면 2039호) /66
- 가해자의 인권?(02. 3. 26 2면 2058호) /105

### ▷류은숙의 인권이야기

- "학연이 있으신가 보죠?"(02. 1. 29 2면 2022호) /32

· 아, 에바다(02. 3. 19 2면 2053호) /94

▷이창조의 인권이야기

· 누가 국가인권위를 혼드는가(02. 4. 2 2면 2063호) /116  
· 아프지 않게 일하게 해달라(02. 4. 30 2면 2082호) /157  
· 파업이 가르쳐 주는 것(02. 5. 28 2면 2102호) /199  
· 한 젊은 검사의 항변(02. 6. 25 2면 2120호) /236

▷육이은의 인권이야기

·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(02. 4. 9 2면 2067호) /125  
· 체벌? “몸으로 때우지, 뭐!”(02. 5. 7 2면 2087호) /169  
· 교과서와 다른 현실...국보법을 폐지하라(02. 6. 4 2면 2107호) /210

▷이우갑의 인권이야기

·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(02. 4. 16 2면 2072호) /136  
· 경찰, 제발 좀 변해라!(02. 5. 14 2면 2092호) /179  
· <이우갑의 인권이야기> 창해와 일남이(02. 6. 11 2면 2111호) /218

▷권두섭의 인권이야기

· 그들이 정한 ‘법과 질서’(02. 4. 23 2면 2077호) /147  
·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?(02. 5. 21 2면 2097호) /189

만화사랑방

·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 매체?(02. 1. 11 1면 2010호) /7  
· 사회복지사 심청던~!(02. 1. 18 1면 2015호) /17  
· “장애인도 버스 타고 싶다”(02. 1. 25 1면 2020호) /27  
· “수퍼맨이 못된 삼성맨들은 더이상 필요가 없지~”(02. 2. 1 1면 2025호) /37  
· 노바티스, “돈이 없다면 구해줄 수 없소!”(02. 2. 8 1면 2030호) /47  
· 부시, 냉전사고 입국 금지 검색대 통과하자 ‘삐삐삐’ 정보음(02. 2. 15 1면 2032호) /51  
· 한총련 미상의 점거농성에 미대사관 발끈 - 테러방지법 불쑥 찬스닷!(02. 2. 22 1면 2037호) /61  
· 부시스턴 회사와 오노스턴 경찰...(02. 3. 15 1면 2051호) /89  
· 에바다 폭력사태를 방조하는 이들(02. 3. 22 1면 2056호) /100  
· 고 최옥란, 최저생계비 필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~(02. 3. 29 1면 2061호) /111  
· 경찰의 1인 시위 방해(02. 4. 5 1면 2066호) /121  
· 중동판 <홍부와 놀부>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(02. 4. 12 1면 2070호) /131

· 진짜 장애인의 날은 어느 것일까요?(02. 4. 19 1면 2075호) /142  
· 집배원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, 대우조선 노동자는 근골격계 직업병(02. 4. 25 2면 2079호) /151  
· 어떤 부모가 아이를 방패막이로? -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!(02. 5. 3 1면 2085호) /164  
· 「열린 채널」, 각종 규제와 순화조건들이 도사리고 있나?(02. 5. 10 1면 2090호) /174  
· 게시판에 올린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~야!(02. 5. 17 2면 2095호) /185  
· 월드컵 맞이 정책 대반성 발표회 - 이렇게는 왜 못하노?(02. 5. 24 1면 2100호) /194  
· 모두들 인권영화제 한번 가서 보시구려~(02. 5. 31 1면 2105호) /204  
· ‘불법집회’라고 강제로 노상구금을 했다고라?(02. 6. 20 2면 2117호) /230  
· ‘월드컵 신화’가 교과서에 실릴 듯 - 사진은 이걸로...(02. 6. 28 1면 2123호) /242

인권정보자료
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장애대학생들이 느끼는 차별 측정(02. 1. 10 1면 2009호) /5  
· <클릭 인권정보자료>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‘정보접근권’(02. 1. 17 1면 2014호) /15  
· <자료읽기> 「2001 삼청교육대백서(상)」(02. 1. 23 1면 2018호) /23  
· <클릭 인권정보> For the Record 2000: United Nations human right system(02. 1. 31 1면 2024호) /35  
· <책읽기> 『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우 정보집』(02. 2. 6 1면 2028호) /43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·2』(02. 2. 20 1면 2035호) /57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테러방지법 자료 모음』(02. 2. 27 1면 2040호)(02. 2. 27 1면 2040호) /67  
· <책읽기> 『인권과 사회복지실천』(02. 3. 6 1면 2044호) /75  
· <책읽기> 『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-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』(02. 3. 13 1면 2049호) /85  
· <책읽기> 『한총련 이야기』(02. 3. 21 1면 2055호) /98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탈북자』(02. 3. 28 1면 2060호) /109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』(02. 4. 3 1면 2064호) /117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』(02. 4. 11 1면 2069호) /129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『떨꺼둥이』(02. 4. 18 1면 2074호) /140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(02. 4. 24 1면 2078호) /148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노동보건현장활동! 나도 잘 할 수 있다(02. 5. 1 1면 2083호) /159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 관련 소식 모음(02. 5. 8 1면 2088호) /170  
· <책읽기> 『비전향장기수-0.5평에 갇힌 한반도』(02. 5. 15 1면 2093호) /180  
· <책읽기> 『양심적 병역거부』(02. 5. 22 1면 2098호) /190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‘성매매와 인권’ 자료 모음(02. 5. 29 1면 2103호) /200  
· <클릭! 인권정보자료> ‘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’ 자료 모음(02. 6. 5 1면 2108호) /211  
· <클릭!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매뉴얼 ‘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’(02. 6. 19 1면 2116호) /227  
· <책읽기> 『위안부’가 아니라 ‘성노예’이다』(02. 6. 26 1면 2121호) /237

## 인권영화

· <인권 영화보기> 가리봉동 그 변방의 사람들(02. 1. 19 2면 2016호)	/20
· <올림-인권영화> 겨울에서 겨울로(02. 2. 2 2면 2026호)	/40
· <올림-인권영화> 주민등록증을 찢어라(02. 2. 16 2면 2033호)	/54
· <올림-인권영화> 철로 위의 사람들(02. 3. 9 2면 2047호)	/82
· <올림-인권영화> 노란들판(02. 4. 5 2면 2066호)	/122
· <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> ① 초심을 지키는 좁은 길(02. 4. 13 2면 2071호)	/135
· <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> ② 전쟁과 인권(02. 5. 4 2면 2086호)	/167
· <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> ③ 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(02. 5. 11 2면 2091호)	/177
· <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> ④ 다양한 소재의 국내작품 열 편(02. 5. 18 2면 2096호)	/187
· <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> ⑤ '진짜 전쟁 영화' - 개막작 <아프간 전쟁>(02. 5. 25 2면 2101호)	/197
· 제6회 인권영화제 상영일정(02. 5. 30 2면 2104호)	/203
· 인권영화제 · 단존스 그림전시회 -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응시한다(02. 5. 31 2면 2105호)	/205
· '사북항쟁' 재평가 서둘러야 - '군부로부터 심한 고문', 피해자들 입열어(02. 6. 5 1면 2108호)	/211
· 5일,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- 올해의 인권영화상 <먼지, 사북을 묻다>(02. 6. 6 2면 2109호)	/214

## 주간인권흐름

· 01년 12월 25일 ~ 02년 1월 7일(02. 1. 8 2면 2007호)	/2
· 1월 7일 ~ 1월 14일(02. 1. 15 2면 2012호)	/12
· 1월 15일 ~ 1월 22일(02. 1. 22 2면 2017호)	/22
· 1월 22일 ~ 1월 28일(02. 1. 29 2면 2022호)	/32
· 1월 29일 ~ 2월 4일(02. 2. 5 2면 2027호)	/42
· 2월 4일 ~ 2월 18일(02. 2. 19 2면 2034호)	/56
· 2월 18일 ~ 2월 25일(02. 2. 26 2면 2039호)	/66
· 2월 26일 ~ 3월 4일(02. 3. 5 2면 2043호)	/74
· 3월 5일 ~ 3월 11일(02. 3. 12 2면 2048호)	/84
· 3월 12일 ~ 3월 18일(02. 3. 19 2면 2053호)	/94
· 3월 12일 ~ 3월 18일(02. 3. 26 2면 2058호)	/105
· 3월 25일 ~ 4월 1일(02. 4. 2 2면 2063호)	/116
· 4월 1일 ~ 4월 8일(02. 4. 9 2면 2067호)	/125
· 4월 9일 ~ 4월 15일(02. 4. 16 2면 2072호)	/137
· 4월 15일 ~ 4월 22일(02. 4. 23 2면 2077호)	/147
· 4월 23일 ~ 4월 29일(02. 4. 30 2면 2082호)	/157
· 4월 29일 ~ 5월 6일(02. 5. 7 2면 2087호)	/169
· 5월 7일 ~ 5월 13일(02. 5. 14 2면 2092호)	/179

· 5월 13일 ~ 5월 20일(02. 5. 21 2면 2097호)	/189
· 5월 20일 ~ 5월 27일(02. 5. 28 2면 2102호)	/199
· 5월 27일 ~ 6월 3일(02. 6. 4 2면 2107호)	/210
· 6월 3일 ~ 6월 10일(02. 6. 11 2면 2111호)	/218
· 6월 10일 ~ 6월 16일(02. 6. 18 2면 2115호)	/226
· 6월 17일 ~ 6월 24일(02. 6. 25 2면 2120호)	/236

## 이달의 인권

· 1월(02. 2. 1 2면 2025호)	/38
· 2월(02. 3. 1 2면 2042호)	/72
· 3월(02. 3. 30 2면 2062호)	/114
· 4월(02. 5. 2 3면 2084호)	/163
· 5월(02. 6. 1 2면 2106호)	/208

## <인권하루소식> 합본 18호

---

---

펴낸 날 : 2002년 8월

펴낸 곳 : 인권운동사랑방

---

---

주소 (110-522)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-29 3층

전화 02-741-5363 / 팩스 : 02-741-5364

이메일 [humanrights@sarangbang.or.kr](mailto:humanrights@sarangbang.or.kr)

[rights@chollian.net](mailto:rights@chollian.net)

홈페이지 <http://www.sarangbang.or.kr>

값 1만원